

contents

04	권두언 교육의 생활세계와 교과서의 시각	한상진
06	특별 기획 교과서 채택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08	교과용도서 선정제도의 정책 방향	유대균
15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의 (사)한국검정교과서의 역할	김병규
21	좋은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역할	한원경
26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선정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정희경
33	중학교 교과서 채택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장홍월
38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의 바람직한 방향	민병관
	현장 교육	
46	지역 교과서 '경상북도의 생활' 편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라재주
	논단	
50	지식 창출형 교수-학습모델 :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	권오남
	연재	
54	중국 E-Learning 산업의 변화와 성장	안지영
	교과서 편집자의 변	
60	상상을 현실로 펼쳐내는 즐거움	고미정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64	국어 교과서에서 백석 시를 읽고 가르친다는 것	박종호
	제언	
68	ICT 매체 활용 교육의 어두운 그림자	이형수
72	교과 자료, 조금 불편하면 어떨까요?	이승미
	나와 교과서	
76	궁핍한 시절, 교양을 먹여준 교과서	박지선
	탐방	
80	'원교재사' 성석경 사장 연구보고서 소개	
85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교과서 연구』 원고 모집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 발행일 2010년 12월 1일 ▶ 등록번호 서울 바 03421호

▶ 발행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전찬구 ▶ 편집기획위원장 김만근 ▶ 편집기획위원 김병규, 이화성, 김정호, 홍후조, 권영민

▶ 퍼낸 곳 우137-808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6-9 ▶ 전화 02-2651-1950 ▶ 팩스 02-2651-1954

▶ e-mail editor@ktrf.re.kr http://www.ktrf.re.kr ▶ 디자인 M.D.A. ▶ 인쇄 삼광사 031-943-3994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의 내용은 편집진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생활세계와 교과서의 시각

교육의 생활세계는 만남에 의한 각성(覺醒, Bewusstheit)이다. 그 만남은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력자인 교사는 교육자이기 전에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풍부한 인간성과 교양, 정서와 유머, 세련되고 성숙한 정신세계와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구리고 여기”(here and now)에서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가가 미래를 결정한다. 현재는 미래를 잉태한다(The present creates future). 고귀한 생명력의 인격체들이 미래의 지구촌 마당에서 멋있게 삶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계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을 어떠한 시각과 관점에서 해석(解釋, interpretation)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얼마나 예리하고 정확하게 내다보느냐에 우리의 후세들과 국가의 장래가 결정된다. 우리는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21세기 학교”(effective and quality school)에 맞는 교육과정의 틀을 짜야 하며 교육과정의 철학과 정신을 살리는 매력적이고 참신한 교과서를 창출해야 한다.

인간이 집을 짓고, 그 속에서 거주하며, 생각하면서(bauen, wohnen, denken)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집에 단순히 거주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이 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표현이며, 이는 인간과 세계, 우주와의 본래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고유세계(Eigenwelt)를 건설해 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과 학생의 만남, 학생과 교사와의 만남, 그리고 신비롭고 새로운 모든 것들(text)- 스마트

폰, 서울 G20 정상회의, 2010 FI(Formula One) 코리아 그랑프리, U-17, 디지털, 트위터, 모바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전공학, 우주산업, 첨단과학, 예술, 철학, 민속, 스포츠,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음악, 전통, 슈퍼스타 K2 등과의 만남은 자기세계의 새로운 지평(horizon)을 여는 교육의 생활세계(Lebenswelt)이다. 쉐러(Max Scheler)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형이상학(形而上學)적인 인식과 우주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인간만이 이념화의 행위(die Akt der Ideation)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캠퍼스라는 교육의 생활세계는 학습자가 꿈과 비전을 가꾸고 자기세계,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다. 학교라는 공간(Raum)은 학습자들이 리듬으로, 몸으로, 글로, 춤으로, 뮤지컬로, 연극으로, 멜로디로, 노래로, 실험으로, 꿈으로, 상상력으로 표현하는 에듀토피아(edutopia)의 세계가 되어야 한다. 그 위에 한국인의 얼과 정신, 문화와 전통,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재발견하려는 노력과 혜안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 핵심이 바로 학습자들에게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의 삶의 생생한 철학이

며 텍스트인 교과서이다.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설계도이며 청사진이고 비전이다. 교육과정은 새로운 세대가 자기들의 삶의 세계와 실존 공간을 멋지게 디자인하는 철학, 원칙,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삶의 길잡이이며 나침판이다. 교과서에는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고 민족의 혼과 얼, 가치관이 서려 있어야 한다. 교과서는 글로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새 세대들이 그들의 다양한 삶을 멋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자신을 바라보는 눈, 세계를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뜰 수 있도록 해준다. 교과서는 인생 향해의 살아 숨쉬는 나침판이다. 교과서는 삶의 지혜와 철학을 얻는 보고(寶庫)이며, 그 속에는 삶의 길이 있다. 교과서는 사고와 사색을 돕는 자료로서 아이디어와 사물의 “새로운 해석”에 탐구심을 촉진해 준다. 교과서는 글로벌 경쟁력이다.

교육의 생활세계는 만남에 의한 각성(覺醒, Bewusstheit)이다. 그 만남은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력자인 교사는 교육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풍부한 인간성과 교양, 정서와 유머, 세련되고 성숙한 정신세계

와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과의 만남에 있어서 자기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 역사의식, 해석방식 등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면을 철저하게 표출하여 학습자들에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성장(growth)에 지대하게 영향을 준다.

학습자들은 그 만남을 통해 삶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과 상상력, 감성, 지능, 추리력, 창의력을 최고의 수준으로 “깨내는” 교과서의 도정(道程)은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틀의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고방식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과서에 대한 “시각(視角)”을 다각적이며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명품 교과서”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과 교과서 출판사, 저자와 전문가, 학부모 등이 “끊임없는 대화와 논의”를 할 수 있는 채널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자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의미 있는 교육적 활동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을 때 교육의 생활세계는 미래를 창조하는 예지에 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새 세대들의 발랄



한 생동감으로 충만될 것이다. 영원히 모든 학습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내일이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이며, 자기의 세계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매일 매일의 새로운 요청이다. 학생과 교사가 22세기를 향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학교 공간에 자기들의 세계로 메워가면서 인생을 설계해 나갈 때, “위대한 대한민국”(Great Korea)의 교육의 생활세계는 진실로 그들에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간적인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소통과 담론의 재료와 수단인 “삶의 텍스트”, “교과서”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에게 삶의 소중한 꽃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존재(Sein)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 “무명(無名)의 존재”를 “유명(有名)의 존재”로 이끄는 일은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의 생활세계와 품격 높은 교과서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認識, Erkenntnis)할 필요가 있다. KT



한글서

한글사

한글서예

한글서

교과서 채택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교과용도서 선정제도의 정책 방향
-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의 (사)한국검정교과서의 역할
- 좋은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역할
-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선정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중학교 교과서 채택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의 바람직한 방향

교과용도서 선정 제도의 정책 방향



유대균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1. 교과용도서의 선정이란?

가. 선정의 의미

● 각 학교가 그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대하여, 교과협의회 또는 학년별 협의회 등의 교과용도서 선정위원회의 추천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 교과용도서 선정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교사의 교수·학습방법과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수준에 적합하고 학습활동에 용이한 교과용도서를 선정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1종 1책이므로 선정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나 검정도서나 인정도서의 경우에는 1종 다책이므로 선정절차가 필요하다.

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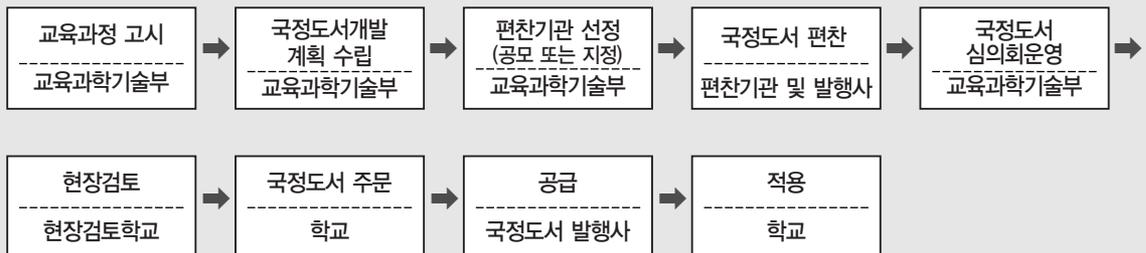
-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 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를 거쳐야 한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설 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다. 교과용도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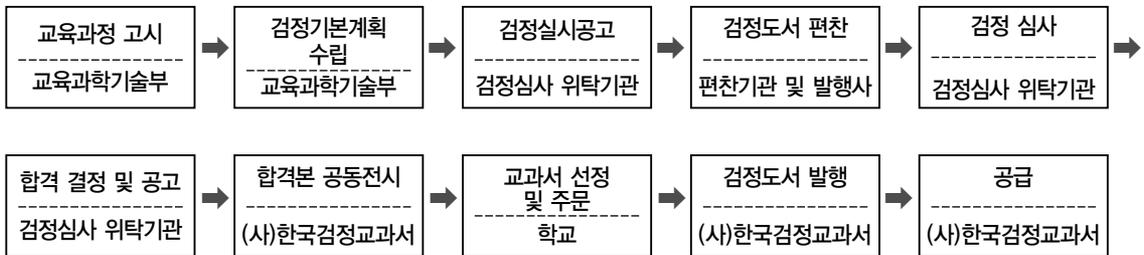
● 국정도서

-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도서로,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시장성이 부족한 교과목을 위주로 개발하며, 1과목에 1종류이므로, 선정할 필요가 없고, 편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정도서 편찬 절차

국정에서 인정 도서로의 전환에 따른 도서 개발 및 인증 주체의 변화로 이를 위한 도서개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인정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인정을 받거나, 인정 심사를 검정에 준하여 받거나, 심의가 필요없는 인정 도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는 미약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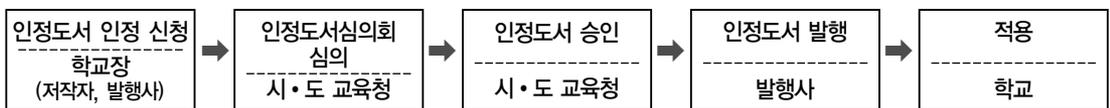
검정도서 개발 절차

●검정도서

-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 합격한 도서로서, 한 과목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하여 선정 절차가 필요하며 현재 검정교과서 중 수학·과학 교과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그 외 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할 예정이다. 검정도서의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정도서

- 국정 또는 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개발된 도서 중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도서로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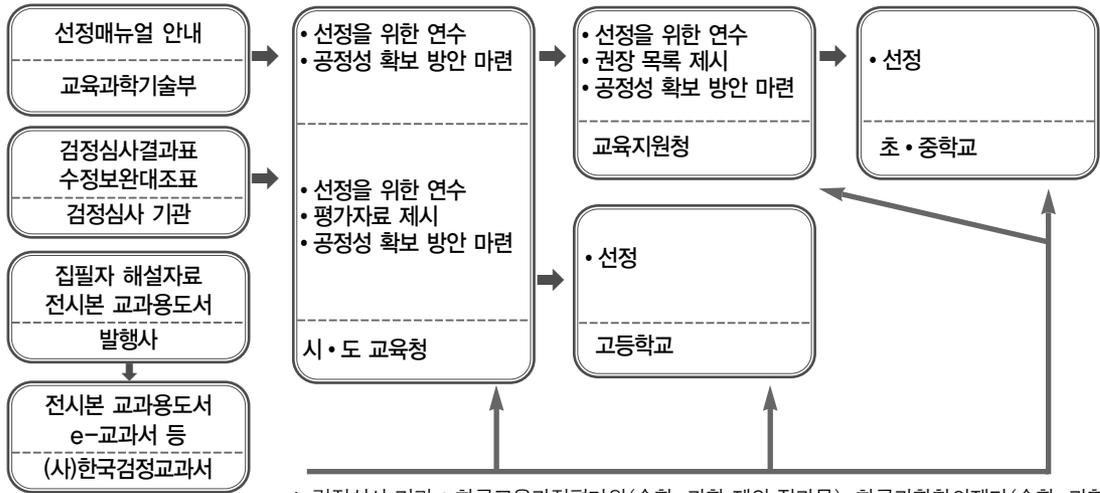
인정도서 발행 절차

●e-교과서

-e-교과서는 가정학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 수록하고 듣기자료의 하이퍼링크, 장면 확대 및 축소, 인쇄 기능 등을 포함하여 CD로 제공하는 교과서이다.

- 초, 중, 고등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치지는 않으며, 해당교과 선정시 부록으로 제공되는 성격과 가지고 있다.

라. 교과용도서 선정 절차



* 검정심사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학, 과학 제외 전과목),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 과학)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

2. 교과용도서 선정의 정책 방향

가. 교과용도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투명한 절차 준수

교과용도서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행사 뿐만 아니라 정부, 시도교육청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과용도서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할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책무성 연수를 실시한다.

-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 선정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과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 선정 전에 자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 선정 전에 교과용도서 선정 방식 및 일정, 학부모·학생의 의견 개선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시 가정 통신문을 통해 안내해야 하며, 선정 후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이 교과용도서 선정·심의 관련 이해관계자(저작자, 발행사·공급대리점 관계자 등)일 경우 해당 위원을 선정·심의 과

장에서 배제하도록 해야한다.

나. 교과용도서 선정을 둘러싼 불공정 행위 근절
교과용도서 선정과 선정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널리 주지시킴으로써 부정행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의 교직원들은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소속 학교의 장에게 보고 또는 관할 시·도 교육청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한다.

●학교의 장은 선정 비리에 연루된 교원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교과용도서 선정 비리 관련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의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선정 비리에 연루된 교원이 적발되었을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발행사 또는 저작자, 공급인 등이 교과용도서 선정에 유리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발행사의 증거물을 압수하고,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도록 한다.

***교과용도서 선정관련 과징금제도 도입을 초·중등교육법에 입법화 추진 중(‘10.10.25현재)**

다. 학교에서 필요한 좋은 교과용도서 선정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정책은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국정 교과서가 검정으로 전환되고 일부 검정 교과서는 인정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자율성 확대는 교과용도서 선정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이 커짐을 의미한다. 즉, 교과서의 자율성 확대에 의해 교과용도서 선정을 위해 다양한 교과서를 검토하고 선정하는 교사의 권한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과용도서의 선정은 발행사(저작자)의 선정 로비가 아니라 교과용도서의 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곧, 발행사 간의 교과서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수한 교과용도서가 공급됨으로써 국가 교육의 수준도 향상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용도서 선정을 담당할 과목담당 교사들이 각 학교마다 1, 2명씩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공정한 선정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

교과용도서 선정시에 제공되는 자료는 기존에 제공되었던 전시본 교과서와 지도서 외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자료와 권장목록이 추가되었으며, 2010년부터 새로 보급되는 e-교과서가 제공된다. 또한, 김정심사 위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김정심사결과표와 수정보완대조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발행사에서는 집필자의 해설서를 제공하여 단위학교에서 좋은 교과용도서 선정을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가. 전시본 교과서 및 전시본 교사용지도서

●전시본 교과서는 검정에 합격한 도서로 교과서 선정의 주된 자료(음악교과의 경우 음원자료 제공)이며, 전시본 교과서 및 지도서는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 택배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분교는 본교에서 전시하며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는 교과서를 주문한 실적이 있는 학교로 제한하고 있다.

나. e-교과서

●2011년부터 초·중·고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적용되는 교과서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

발행자 등이 검정도서의 선정·발행·공급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검정합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정합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교과용도서의 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초·중·고교육법에 신설하고자 추진 중이다.

도록 만든 CD로 된 교과서이며 교과서의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 제작하였고, 학습자 편의 기능(교과서와 학습활동책을 연계, 인쇄, 찾기 등)을 추가하였다.

●e-교과서는 교과용도서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검정심사를 거친 교과서의 내용만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영어 교과서의 경우는 검정심사에 통과한 전자저작물을 e-교과서로 대체하였고, 중·고교 영어교과서의 경우에는 기존 듣기자료를 e-교과서에 포함하였다.

●e-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보급하는 발행사에서 제작하며, 서책형 교과서와 같이 전시되므로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교과서의 검수는 기술분야와 내용분야로 나누어 하였으며 내용분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어, 영어)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에서 검수하였고, 기술분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담당하여 추진하였다.

다. 검정심사 결과표

●검정심사기관에서 검정심사를 통하여 생성된 자료로, 검정심사기준에 따라 검정출원된 심사본을 평가한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최종 합격공고일(올해의 경우 '10.7.30) 이전에는 '교과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심사본'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검정심사결과표는 교과별 심사영역에 따라 등급을 표시한 자료로, 영역별 등급 수준이 교과서를 선정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습환경과 학생들의 여건에 적합한 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며, 검정심사 결과표는 검정심사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 홈페이지

(<http://tba.kice.re.kr>)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수학, 과학)

(<http://kofac.or.kr>)

라. 수정·보완 대조표

●심사본을 검정할 때 검정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내용·표기 등의 오류를 검정심사기관에서 수정·보완 권고한 사항으로 교과용도서를 개발할 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이므로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본다.

●각급학교에 전시되는 전시본 교과용도서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수정보완 내용이 이미 반영된 상태이다.

●수정·보완 대조표는 검정심사기관 및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 홈페이지

(<http://tba.kice.re.kr>)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수학, 과학)

(<http://kofac.or.kr>)

*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http://www.ktbook.com>)

마. 집필진 해설서

●집필진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로, 교과서 집필방향이냐 특징 및 장점, 활용 방법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을 높이기 위해 발행사의 집필진이 공식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는 자료이다. 발행사별로 2쪽의 동일한 분량의 홍보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시본 교과서와 함께 책자로 제공하였다.

바. 도서별 평가자료

●도서별 평가자료는 시·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 제공하는 자료로,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이나 교과교육연구회, 학회 등 교과별로 2~5명 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교과서를 평가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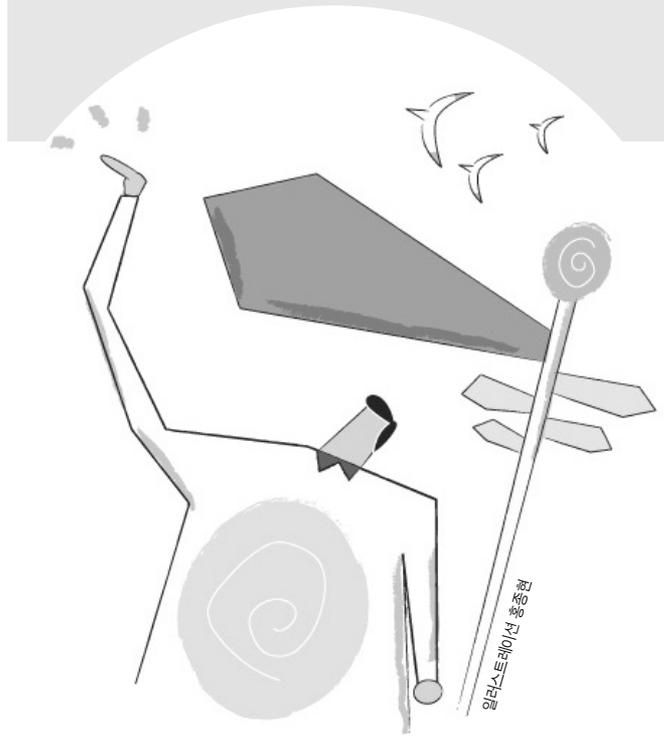
●평가자료 제공은 단위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을 위한 혼선을 예방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며,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의 여건과 교과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거하여 제시하였다.

●교과별 평가자료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서술형, 계량형 등의 평가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각 고등학교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사. 권장 목록 제시

●권장 목록은 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에 제공하는 자료로, 교육지원청에서 교원이나 교과교육연구회 등 교과별로 2~5명 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시된 교과서의 특징을 평가한 후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제공하는 자료이다.

●권장목록 제공은 단위학교에서 1교과 다책으로 인하여 교과서 선정을 위한 혼선을 예방하고 학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며 의무교육인 초·중학



교에 대한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시본 교과서의 개별 특성을 기술하는 방향으로 작성 제공하되, 분야별(영역별)로 서열이나 순서를 매기는 것도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시 권장목록을 참고하여 선정하되 현재, 평가자료 또는 권장목록 제공은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4.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제도 정비

가. 법령 정비

●교과용도서의 선정과정에서 발행자 간의 불법·과당경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하여 사실상 제재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발행자 등이 검정도서의 선정·발행·공급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검정합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정합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교과

용도서의 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고자 추진 중이다.

● 또한, 검정합격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기 중 사용 중인 검정도서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재처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검정합격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나. 부조리 방지 대책반 구성·운영 및 예방조치 강화

● 교과서 선정관련 기본방향은 부조리 발생을 위한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도별로 검정도서 선정 매뉴얼을 보급하고, 연수를 강화하고자 한다.

●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민원발생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부조리 발생 시 특별조사나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 등을 통하여 관련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발행사 및 검정관련기관의 자정노력 촉구

● 검정도서 선정을 위해서는 발행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검정협회 주관의 '부패방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발행사간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주) _____

1) 본 자료는 지난 2010. 8월에 교과부에서 제공한 '2010년 검정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며 '교과용도서 검정과 채택의 발전방안 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9)'와 '교과서 채택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검정교과서, 2010)'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2) 국어사전에 '채택(adopt)'이란 '작품이나 의견, 제도 따위를 골라서 다루거나 뽑아 씀'으로 되어있고 '선정(selection)'은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용도서 채택'이란 용어보다는 '교과용도서 선정'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도 '교과용도서의 선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의 (사) 한국검정교과서의 역할



김병규 || (사)한국검정교과서 사업본부장

1. 들어가는 말

교과서 채택이란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일선 학교에서 교과협의회 및 학년별 협의회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해당 학교의 특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양질의 교과서를 선정·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해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에 전시본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와 e-교과서를 제작·보급하며 2011학년도부터는 '2010검정 집필진 해설서 보급 계획(2010.7.8)'에 따라 발행사별로 동일한 분량의 공식적인 홍보 기회를 제공하여 집필진들이 작성한 집필의 방향이나 특징 및 장점, 구성과 활용방안을 수록한 「집필진 해설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검정심사기준에 따라 검정위탁기관에서 심사본을 평가한 '검정심사 결과표'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토록 하였으며 시·도·지역교육청에서는 교원이나 교과교육연구회, 학회 등 교과별로 2~5명 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교과서를 평가한 참고자료인 '도서별

평가자료'와 '권장 목록'을 초·중등 전국 각급 학교에 각각 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검정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내용·표현·표기 오류 등을 검정심의위원이 발행사에 수정·보완 권고한 사항의 이행 결과물인 '수정·보완대조표'는 이미 2009년 검정 합격본부터 검정위탁기관과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교과서 검정에 통과한 교과용도서가 일선 학교에 직접 전시되어 해당학교의 특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의 일환인 전시본 공급, 전시·선정 및 주문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인 흐름을 점검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교과용도서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한국검정교과서의 역할을 발행사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교과용도서의 전시·선정 및 주문, 공급 현황

'전시본'이란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일선 학교에서 공정한 선정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공급·전시하는 검정도서를 말한다.

전시본은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시본 배부 계획'에 의거 검정 합격된 교과서의 인쇄 필름을 발행사로부터 인수하여 최소의 적정 부수를 계획 생산·배부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전시·선정하는데 협력하고 있으며 출판·대리점 등으로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불공

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렇게 배부된 전시본은 교과서 선정 후 일선 학교별 분공급 전에 교사들의 교재연구용으로 활용케 하고 있다.

전시본 배부 대상 및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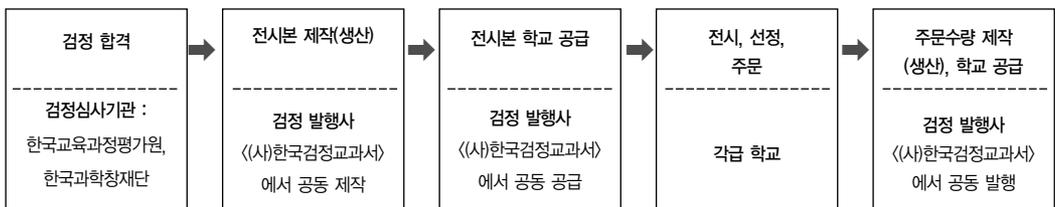
배부 대상	수 량 (질)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국 초·중·고등학교	5,927	3,273	2,377	11,577	
시·도 교육청	16	16	16	48	
지역교육청	180	180	180	540	
교육과학기술부	5	5	5	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3	3	9	
한국과학창의재단	-	3	-	3	수학/과학
발행사	17	61	41	119	
법인 및 여분	52	59	78	189	
합계	6,200	3,600	2,700	12,500	

* 초등학교 분교 제외,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는 교과서를 주문한 실적이 있는 학교로 제한

* 수량(질) : 1질 = 초등-서책형 132책 + CD 36종
 중학-서책형 190책 + CD 59종
 고등-서책형 106책 + CD 16종

학교에서는 전시본을 배부받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생의 수준, 지역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 교과협의회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앞으로 사용하

게 될 검정도서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최종 확정된 도서를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교과서 선정을 위한 전시계획 및 주문업무 안내'의 도서목록에 의거하여 NEIS를 통해 주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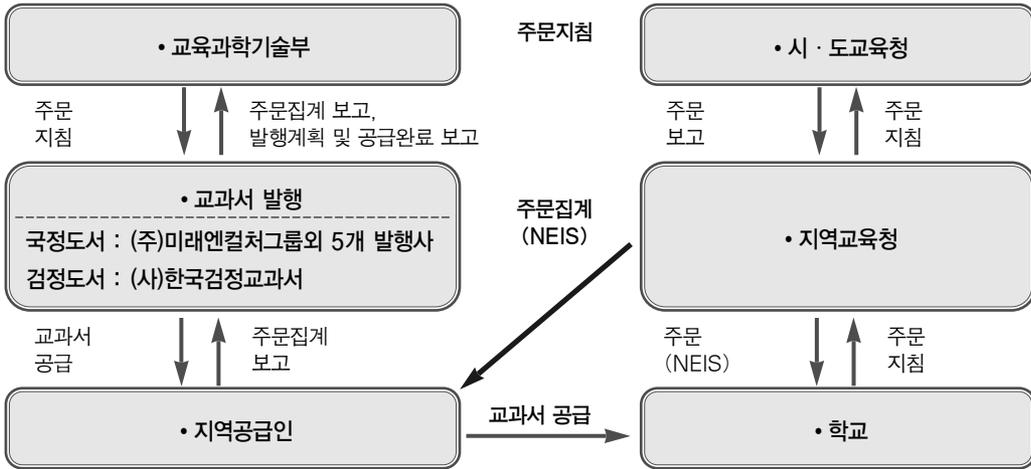
전시본 제작 및 주문 절차

교과서 주문 및 공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문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학교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최종 확정된 교과서는 역으로 일선학교에서 주문 집계하여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로 진행된다. 주문 집계된 물량을 국정도서는 6개 발행사가 각각 개별 생산하고 검정도서는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 공동으로 생산·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교과서 대금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교과서를 구입할 때 국가에서 그 대

금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 구입 대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 사이에 지역교육청이 매개역할을 담당하지만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초·중학교와 구별된다.

현재의 교과서 공급 업무는 국정 및 검정도서로 이원화하여 국정도서는 (주)미래엔컬처그룹의 5개 발행사 공동으로, 검정도서는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 전반적인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 업무를 기획·조정·관리하고 있다.



교과서 주문·공급 체계도

교과서 공급업무 운영 형태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운영주체	• 6개 국정도서 발행사 공동관리 형태로, (주)미래엔컬처그룹의 5개 발행사 공동 위탁 관리	• (사)한국검정교과서
공급조직	• 16개 시·도 공급인(119명)	• 16개 시·도 공급인(111명)
공급계약	• 공급인과 1년 단위 계약 (공급인은 개인사업자)	• 공급인과 1년 단위 계약 (공급인은 개인사업자)
물류창고	• 6개사 자체 개별 운영	• 교과서 공급전용 물류창고 보유

공급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에서는 발행사가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전시·주문, 공급 및 정산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급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업무는 공급 업무지침에 따라 학교 및 교육청의 교과서 주문내용을 검토 및 집계하고 공급받은 교과서의 학교 배분, 조정 주문 및 반품, 대금 정산 업무 등 교과서 수요자인 교육청, 학교, 학생 및 학부모간의 공급관련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3. 교과서 채택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의견 조사

일선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 및 채택은 저작자나 발행사의 개별 사적 관계 등 교육 외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고 학생만을 위한 교육적인 견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발행사 간의 교과서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한 교과서가 공급됨으로써 국가 교육의 수준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하거나 채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

한된 기간에 1~2명의 교사가 교과서 선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과서의 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물리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교과서 선호도의 차이, 지역에 따른 교육 환경 차이, 또 교과서·저작자·발행사 등의 관계나 로비 등 많은 외부의 불합리한 요인들이 있어 우수한 교과서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정한 교과서 선정 방법을 제시하고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최소화하고자 2011학년도 검정도서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검정심사 결과표」, 「집필진 해설서」, 「도서별 평가자료」, 「권장목록」, 「수정·보완 대조표」를 마련·제공함으로써 교과서 선정을 위한 혼선을 예방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며,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발행사별 공통적인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위 5종의 공식적인 참고자료 외에 발행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이용한다면 우수한 교과서를 선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과서 선정 관련 유형 분류를 통해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공통사항

- 발행사·저작자·도서판매업자(이후 '발행사 등'이라고 함)가 직·간접적으로 금품·물품·향응·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의)하거나, 학교(교원)에서 이를 요청하는 행위
- * 학교발전기금 또는 교구·교재 제공, 교직원 연수 시 차량 등 편의 제공, 각종 공식·비공식 행사 협찬 등
- 발행사 등이 개별 홍보자료(리플렛, 브로셔 등) 또는 교사용지도서 및 보조자료(CD) 등을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의)하거나, 학교(교원)에서 이를 요청하는 행위
- 발행사 등이 참고서 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의)하거나, 학교(교원)에서 이를 요청하는 행위

발행사·저작자·도서판매업자 등

- 발행사 등이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교과서 선정을 방해하거나, 홍보자료 또는 언론 등을 통해 다른 교과서를 비방하는 행위
- 발행사 등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과서 선정·주문 완료 전 해당 교과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는 행위
- 발행사 등이 학연·지연 등을 통해 자사 교과서 채택을 권유하는 행위

제한된 기간에 1~2명의 교사가 교과서 선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과서의 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물리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많은 외부의 불합리한 요인들이 있어 우수한 교과서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이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발행사들간의 홍보 기회 부여나 주변 환경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발행사로서는 자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작 과정 못지 않은 노력으로 지연·학연·혈연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지나친 과당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발행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현재 교과서 선정에 활용되는 공식적인 참고자료 5종의 효율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으나 (사)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한 수정보완대조표 및 집필진해설서 배부 및 공개하는 방법은 효율적이라는 응답이 비효율적이라는 응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필진 해설서의 경우 게시할 수 있는 내용이 집필 방향, 특징 등 극히 제한적이어서 제작 내용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교과서의 특징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발행사이다.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공식적인 참고자료 외에 교과서의 제한적인 홍보가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 대형출판사의 경우 제한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반면 중소형출판사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제한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재정이 약한 중소출판사에 비해 대형출판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출판사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여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 순이었다.

발행사마다 공정하게 각 교과서의 특징점을 설명하는 제한적인 홍보 기회를 부여한다면, 투명하고 객관적인 설명(홍보) 자료를 제작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된 기관을 통해 제작하고 제작된 자료를 공동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홍보 유형에 대해서는 제작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식적인 참고자료인 집필진해설서와 같은 설명(홍보) 자료로 제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대로 언론(대중매체)을 통한 광고, 직·간접적인 교구·교재 제공, 관련 교수·학습 자료가 담긴 USB, CD 등의 제공, 온라인을 통한 학습자료 다운로드 허용은 적절치 않다고 응답해 자칫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반전될 수 있는 형태의 홍보 유형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발행사들이 교과서 선정에 유익할 목적으로 현재보다 자유로운(제한적이긴 하겠지만) 홍보가 허락된다면 이미 교과서 집필의 방향이나 특징, 활용방법 등을 수록한 집필진 해설서와 같은 성격의 설명(홍보)자료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단, 집필진 해설서에는 수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던 수업 보조교재나 교수·학습자료 소개 및 활용 안내 등을 수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집필진 해설서에 극히 제한적인 자료만 제공토록 한 가이드라인을 완화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가 행정부처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해 행정부처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과서 선정 기관 지정(24%), 불공정행위 신고 센터 활용(19%), 관련 담당자들의 책무성 교육(13%) 순이

있으며 시·도교육청 등에 설치된 채택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은 거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데 가장 어려운 난점은 발행사와 일선 학교의 오랜 관행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35%)을 꼽았으며 발행사의 총판·대리점을 활용한 불공정행위 적발에 대한 안이한 인식 만연(26%), 행정부처의 관리·감시·감독 미흡(25%) 이라고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교과서 채택을 관리·감독하고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전담기구를 행정부처에서 지정하고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 법과 규정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교과서 선정과 관련 학교 현장의 부조리 근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4. (사)한국검정교과서의 역할

교육 내용으로서 일선 학교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바로 교과서이다. 이러한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전시·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시본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주문·정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한국검정교과서는 그 책무에 충실해야겠다.

발행사에게는 심혈을 기울인 교과서의 특장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일선 학교에게는 발행사의 외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교과서 내용의 정확성, 구성의 참신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교과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수한 교과서 선정을 목적으로 제작되어진 참고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작 가이드라인을 정비·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전시·선정기간에 유일하게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 현장의 출입이 용이한 (사)한국검정교과서 공급인의 역할을 체계적인 교육

을 통해 강화하여 교과서 선정과 관련 불공정행위 예방 및 척결, 계도와 신고 등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급인을 환경정화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발행사협의체로서의 역할 즉, 발행사의 공동이익과 학교현장의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 선정과 채택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책무성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연수 등)을 실시하는 등 사전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극히 일부라고 하더라도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기준 및 방법을 행정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확인·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관계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교과서 채택 업무에 공명正大하게 임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우수한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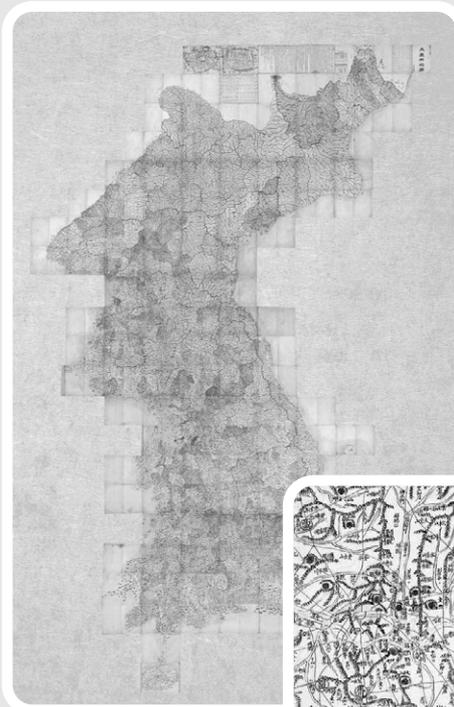
좋은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육청 · 교육지원청의 역할

한원경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해방 직후부터 지난 50여 년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고산자 김정호 전기문이 게재되어 왔다. “김정호는 황해도 두메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정확한 지도를 만들겠다고, 조선 팔도를 세 번이나 돌고 백두산을 일곱 차례나 오르며 대동여지도와 그 판목까지 완성했으나, 관리들에게 나라 사정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오해를 받아 옥에 갇혔을 뿐 아니라, 애써 만든 판목까지도 불살라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동여지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대작업에 매달렸던 이우형씨에 의해 이 내용이 일제의 식민사관 교육의 잔재에 의해 왜곡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정호는 조선팔도를 세 번이나 돌아다니지도, 백두산을 일곱 번이나 오르지도, 옥에 갇히지도 않았으며, 불살라졌다는 판목도 1995년에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고증되어 1997년도에 새로 간행된 5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우형씨의 토로에 의하면, 새로 발견하여 정리한 정확한 사료들을 손에 들고서도 자꾸만 그 옛날 초등학교 교실에서 읽었던 교과서의 글과, 침을 튀기며 가르치시던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떠올라 ‘그래도 김정호는 전국을 답사했을 거야’ ‘옥에 갇혀 숨진 게 맞을 거야’ ‘목판은 불탔을 거야’ 라는 회의의 깊은 수렁에 생각의 발목이 빠져들어 매우 곤혹스러웠다고 했다.¹⁾



대동여지도



이처럼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서 읽고 배운 내용은 성인이 된 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때문에 좋은 교과서, 정확한 교과서 선정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단순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두고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및 교과서 선정 관련 학교 내 교직원 자율연수를 실시하여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두고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원 연수

대구교육청에서는 좋은 교과서의 선정을 위해 2010. 8. 20. 14:00,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수회에는 초·중·고, 특수학교 교감 및 교과서 담당교사, 지역



대구시 교육청의 좋은 검정 교과서 선정을 위한 연수회

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회는 2011학년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선정과 관련, 검정 교과서 선정 부조리 예방 교육을 목적으로 '좋은 교과서 선정이 좋은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어 검정교과서

선정 매뉴얼 설명 및 선정 부조리 예방 대책에 관한 업무 전달을 했다.

2. 교과서 전시본 전시

교육청은 2010년 8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38일간) 교육청 전시본 교과서를 2층 자료실에 전시하여 전문직과 교사,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위원들이 평가 자료를 만들 때에도 활용하였다.

3.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는 교과서 대금을 교육청이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선정을 학교에 전적으로 일임하였다. 2010년부터 교육청의 역할을 증대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며, 학교의 교과서 선정을 돕기 위해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를 만들었다. 먼저, 해당 교과 장학사로부터 교과연구회 소속 교사나 전문성이 높은 교사 2명씩 추천을 받아 평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평가 기준은 교과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별로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가 자료를 만들었다. 대구교육청은 18 과목에 36명의 평가 위원을 위촉하였다.

평가 자료를 만들 때 전시된 교과서 및 e-교과서, 발행사의 집필자 해설 자료, 검정심사 위탁 기관의 검정심사 결과 자료 및 수정보완 대조표

과목별 평가 위원 현황

국어 (상)	국어 (하)	도덕	사회	한국사	역사	지리	기술	체육	음악	미술	보건	공업	기초	정보기술	상업	컴퓨터	회계	합계	
입문	제도	기초	경제	일반	원리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36명

등을 참고하였다. 평가 결과는 교과서의 등급을 나타내는 계량형보다는 교과서의 특성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다. 평가 시기는 전시본이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평가 자료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일 만에 완료하여 고등학교에 배부하였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학교의 교과서 선정을 돕기 위해 권장목록을 마련하였다. 4개 교육지원청이 따로따로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용이 다를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4개 교육지원청의 협의를 거쳐 해마다 돌아가면서 1개 교육지원청이 권장목록을 만들고 나머지 3개 교육지원청의 학교에 함께 배부하도록 하였다. 올해는 초등 20명, 중학교 32명을 선정위원으로 위촉하였다.

4. 학교의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시교육청의 평가자료 및 교육지원청의 권장목록 작성과 더불어 학교별로 교과서의 공정한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검정 교과서 전시와 더불어 교과(학년) 담당교사의 추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확정이라는 3단계를 거쳐 검정교과서를 선정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 선정 관련 일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교과서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및 교과서 선정 관련 학교 내 교직원 자율연수를 실시하여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가. 교과서 전시

각 학교는 전시본 도착일로부터 최종 선정일까지 전시했다. 전시장소는 교직원들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학교장이 지정하고 관계자(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고지했다. 전시 기간 중 출판사 관계 직원이나 저작자 및 도서판매업자(서적상)의 학교 출입을 일체 통제하도록 했다. 전시본은 선정이 끝난 후 학교별로 자료실 등에 보관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전시 책수 : 전체 428책(103)

초등학교 132책(28), 중학교 190책(59), 고등학교 106책(16)

()는 e-교과서

도서를 전시할 때에는 검정 승인을 받은 모든 교과서를 빠짐없이 전시하고,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 전시용 도서와 함께 배부된 집필진 해설서, 검정심사결과표, 수정보완대조표 외의 자료는 전시를 금지했다. 또한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출판사가 주최하는 도서설명회 등을 못하도록 하였다.

일부 교과별 교사 모임 등에서 인터넷이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출판사별 교과서 내용 분석표 등을 인터넷상에 올려 특정 검정도서를 간접 홍보함으로써 검정도서 선정의 공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 교과서 선정

학교별 검정도서 선정은 각 교과협의회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수준, 지역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 및 교과서 선정 관련 학교 내 교직원 자율연수를 실

시하여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 대책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검정도서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개인별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표, 추천의견서, 심의의견서, 회의록 등 제반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교과서 선정 기준표, 선정 절차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초·중학교는 전시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e-교과서, 검정심사 결과표, 수정·보완 대조표, 집필진 해설서, 교과별 평가 자료, 권장목록을 참고하여 검정도서 선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고등학교는 전시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e-교과서, 검정심사 결과표, 수정·보완 대조표, 집필자 해설자료, 교과별 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검정도서 선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교과서 세부 선정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인 추천 단계에서는 학생 수준,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 자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교과담당 교사가 3종을 선정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도록 하였다.

■ 추천 절차 :

- 교과담당 교사의 개인별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표' 작성 →
-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 일람표' 작성 →
- 순위를 정하여 3종을 선정하여 '추천 검정도서 및 추천의견서' 작성 →
-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 2단계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추천된 검정도서의 체제, 삽화 및 사진의 내용·배열·선명도, 활자, 지질, 제책, 학생 사용의 편의성 등을 심의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 교사 대표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추천 검정도서 3종에 대한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하도록 하였다.

● 3단계인 학교장 확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주문도서에 대한 차순위를 결정하여 발행사의 운영난 등으로 재주문이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 개최하지 않고 차순위 도서를 자동 확정하게 했다.

다. 주문 및 학교 홈페이지 공개

마지막 단계는 주문 및 학교 홈페이지 공개이다. 학교의 교과서 업무 담당자는 NEIS를 통하여 선정된 교과서의 물량을 파악한 후 주문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공개 항목은 교과서 선정 기준, 절차, 결과, 학부모·학생 의견개진 방법 등이다. 공개 시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외부의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정 기준을 최종 선정 전 공개하고, 선정 절차 및 결과는 최종 선정 후 공개하도록 하였다.

선정 절차는 검정교과서 선정 부조리 방지 대책을 참고하여 학교에서 결정한 절차를 공개하되, 교과별 선정 협의회 일시, 참석자 수, 학교운영위

원회 일시, 참석자 수, 심의 결과, 학교장 최종 선정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 선정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 교과서에 한하며, 선정 결과 공개 시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의 개인별 평가 결과 및 평가 의견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였다. ¹⁾

주) _____

1) 김정호에 관련된 이야기는 대구매일신문의 하이스타디 "말과 글이 흐르는 풍경" (2006.8.1.)에 실린 대구두산초등학교 김동국 교장선생님의 '교과서의 글, 선생님의 말' 에서 인용하였음.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선정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정희정 || 춘천 남산초등학교 교감

I. 교과서 선정 과정의 배경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2일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2~3년 사이에 잦은 교육과정의 개정과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빠른 변화에 미처 적응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제도도 변화가 되어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해야하는 일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라 여겨진다. 교과서 선진화 방안 중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선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 비리를 근절하고, 교과서 선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키로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과서 선정 과정은 검정·심사에 관심이 집중되어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교과서 선정 활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가 일시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수요자의 선택폭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 방향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 중수는 많아지고 있지만 교사의 교과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미흡하며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과서 검토에 대략 1개월 정도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으나 학교

에서는 여러 가지 학사 일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을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교과서가 보다 '쉽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교과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과서 평가 능력 신장,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 그리고 평가 자료의 제공과 교과서 선정 권한의 명료화와 교과서 선정 절차의 간소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 선정 과정을 살펴보고 교과서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본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II. 교과서 선정 과정 및 추진 내용

1. 세부 추진 계획

가. 목표 및 방침

본교에서는 교과서 선정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본교의 학생 수준, 농촌 지역 실정 및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선정하지는 목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며 일정 기간 동안 교과서를 전시하고 과목별 선정 기준(안) 및 채점표를 작성하여 심의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였다.

최근 2~3년 사이에 잦은 교육과정의 개정과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빠른 변화에 미처 적응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제도로 변화가 되어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해야하는 일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라 여겨진다.

나. 추진 내용

(1) 교과서 선정을 위한 회의 일시 :

2010년 9월 1일(수) 15시

(2) 장소 : 교무실

(3) 대상 교과서 : 3~4학년 영어, 5~6학년

실과, 음악, 미술, 체육

(4) 위의 회의 결과 교과서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위원장 : 교감

- 위원 : 본교는 6학급 규모의 학교라 교사

전원이 선정위원임

(5) 검정 교과서 전시

• 전시기간 :

2010년 8월 30일(월)~9월 1일(수)

• 전시 장소 : 본교 영어체험학습장내 도서관

• 전시 중 유의 사항 : 전시 기간 중 도서 판매업자(서적상)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출판사 주최의 도서 설명회나 유사한 모임에 참석을 금지하였다.

• 전시 기간 중 담당교사는 일부 교과별 교사 모임 등에서 발행사별 교과 내용 분석표를 인터넷상에 올려 특정 교과를 간접 홍보하는 사례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였다.

2. 추진 단계

가. 1단계 : 교과협의회의 추천

(1) 6학급인 본교에서는 전교사가 모두 평가위원이 되어 회의를 통해 담당 교과와 과목을 정해 주었다. 본교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이 되어

자율학교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농촌 학생들의 수준과 문화생활의 경험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영어나 미술은 참고 작품이 자세하게 안내 된 교과서를 선정하자는 등 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선정 기준을 정하였다.

(2)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이미 일정 수준을 만족하는 것이라 전제할 때, 교사들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과서 평가기준 항목으로부터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항목을 추출해 선정기준표를 작성하였다.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준표는 교육지원청 등에서 제공한 것보다 단순화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본교에서 꼭 필요한 기준만을 넣어 만들었다.

(3) 선정 기준 항목별 점수 및 평가 방법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4) 교과 또는 학년 담당 교사들이 작성한 선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수준, 특징 및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 교과서를 심사하였다.

(5) 교과별 협의회 검토 후 추천 검정도서 및 추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였고 담당 부서에서는 교과별 추천의견서를 수합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6) 개인별 검정도서 선정 기준 평가표, 평가 일람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봉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조치하였다.

검정 교과서 평가표 (본교의 예-미술과 5-6학년)

위원 : (인)

구분	평가 내용	점수 (항목-10점)
교과 일반 기준	1. 교육과정의 성격에 맞고 교과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적절한가?	
	2. 단위배당 기준에 알맞은 분량의 내용을 선정하였는가?	
	3. 내용과 용어는 학생의 발달수준에 적합하고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가?	
	4. 아동의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재 및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5. 단원의 학습목표와 제재의 성격에 따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조직되었는가?	
	6. 본교의 실태 및 특성에 맞게 참고작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7. 단원 구성은 학생들의 참여와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있는가?	
	8. 판형, 색도 등 인쇄와 편집 체제는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9. 작품 설명은 간결 명료하며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진술되어 있는가?	
	10. 교과서를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차례, 단원, 찾아보기 등이 잘 정리되었나?	

검정 교과서 평가표 (본교의 예-미술과 5-6학년)

위원 : (인)

출판사	대표저자	영역별 점수										총점
		1	2	3	4	5	6	7	8	9	10	
(주)교학사	노영자											
(주)금성출판사	김용식											
(주)천재교육	이규선											
(주)천재교육	이우중											
(주)천재교육	정일											
두산동아(주)	노부자											

출판사	대표저자	영역별 점수					총점	순위
		정○○	김○○	최○○	박○○	황○○		
A	○○○	98	92	82	90	96	458	4
B	○○○	98	89	83	89	91	450	7
C	○○○	97	91	93	93	93	467	3
D	○○○	98	88	92	84	90	452	5
E	○○○	97	86	75	87	92	437	9
F	○○○	100	96	98	98	99	491	1
G	○○○	98	90	76	80	89	433	11
H	○○○	97	86	77	85	87	432	12
I	○○○	98	86	78	82	88	432	12
J	○○○	96	89	79	81	90	435	10
K	○○○	96	86	81	80	89	432	12
L	○○○	97	88	83	84	86	438	8
M	○○○	99	92	95	96	97	479	2
N	○○○	98	91	85	83	95	452	5

나. 2단계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1) 추천된 검정도서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의 타당성 등을 학교운영위원회(9월 9일 개최)에서 심의 안건으로 여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심의 절차차를 거쳤다.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 위원은 전문성도 부족하므로 학생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과협의회의 선정 기준과 절차에 동의하며 학교에 맞는 적절한 심의기준표를 작성해 교과서를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초등학교 교과서 까지 국경에서 검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에 대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하며 각 교과마다 10종류

이상인 교과서들이 있다는데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출판사에서 로비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운영위원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과서 선정에 관해 사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연수나 홍보가 부족함을 안타까워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추천 검정도서 3종에 대한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에게 추천 도서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고 기타 심의 관계서류는 봉하여 담당부서에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였다.

*심의의견서에 발행사 운영난 등으로 재 주문이 필요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 개최하지 않고 차순위 도서로 자동 확정할 수 있다는 사항 명기

III. 교과서 선정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교과서 선정 과정의 실태 및 문제점

가. 피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한 교과서 선정

(1)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직접 전달되면 학교에서는 일정한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검토·선정 기간이 실질적으로 1개월 정도이므로 피상적인 평가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2) 본교와 같은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을 위한 과목별 담당 교사가 부족하여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의 교과서를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3) 검토해야 할 교과서의 종수가 너무 많고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과서 검토에 대략 1개월 정도

(4) 현행 규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 교사들에게 일임하는 등 심의 기구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나. 교과서 선정을 담당하는 교사의 교과서 평가 전문성 부족

(1) 교사에 의한 교과서 검토와 평가 결과서 작성은 교과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추어 일회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사가 교과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고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교과서 선정 활동은 이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즉 교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교과서가 학교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



검정 도서 교과별 선정 과정



교과별 선정 운영회의

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학사 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선정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할애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의 의견에 따라 교과서 선정·채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또한 교과서 선정·채택을 둘러싼 부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본다.

다. 전입생들의 교과서 구입이 어려움

(1) 학교마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전입·전출이 중고등학교보다 비교적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전입한 학교에서 다른 교과서를 사용한다면 교과서 구입에 관한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도 생길 것이다. 교과서 구입 장소도 공지를 하여 알려주어야 하고 교과서의 재활용과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 등 일선 학교에서는 교과서 분실이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2. 교과서 선정 과정의 개선 방안

가. 교과서 관련 기관에 의한 교과서 평가 실시 및 결과 제공

(1) 교과서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제한된 교사 수만으로는 교과서 평가를 충실히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갖춘 교과서 관련 기관에서 실시한 교과서 평가 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이를 토대로 자신의 평가 능력을 발휘하여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 출판사(저작자)에게 공정한 교과서 전시회 및 설명회 기회 부여

(1) 교과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출판사들

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일선 학교의 교과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출판사가 합동으로 교과서 특징을 설명하는 교과서 전시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강화

(1) 교과서 선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교사들이다. 즉,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서 평가 능력을 충동원하여 직접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게 되는데 교사의 평가 능력 신장은 올바른 교과서 선정의 관건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교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중수의 교과서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평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 자료 제공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2)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강화는 단순히 교과서의 선정시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과정에서 교과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교수 학습 활동에 참고하여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교과서 채택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홍월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중학교 교사

1.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학교 풍경

국정에서 검·인정제로의 교과서 편찬제의 변화는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문적·교육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교과서는 몇몇 개 전문교과를 제외하고는 검정교과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검정교과서란 국가에서 제시한 집필 기준에 맞게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개발하여 적정 심사를 거친 후 교재로 적절하다고 검정 승인을 받은 교과서를 말한다. 검정제 아래에서 다양한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나 학생의 처지에 맞는 교과서를 고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가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검정제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있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

현재 중고등학교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발행된 검정교과서를 각 학교가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 채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시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검정도서 선정 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가 채택되는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교는 검정교과서들이 전달되면 검정교과서 전체를 일정 기간동안 공개 전시하도록 되어있다. 동시에 교과 담당 교사들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를 개인적으로 검토한 후에 개인별 채점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교과부장이 이를 취합하여 순위를 매긴 뒤 상위에 오른 세 개 교과서에 한해 추천 사유를 써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추천된 내용을 심의한 뒤 다시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면서 교과서의 종류와 질이 매우 다양해졌기에 이제 교과서 선택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학교와 학생의 처지를 고려해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는 검정제의 취지를 살리는 대전체다. 그러나 지금의 교사들에게 교과서를 선택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좋은 교과서'를 선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2. 좋은 교과서 선택을 방해하는 것들

가. 선정상의 문제점

● 지나치게 많은 검정교과서,

턱없이 부족한 검토 시간

무엇보다도 교사가 교과서 선택을 위해 고민할 시간이 없다. 수학 14종, 사회 15종, 영어 19종 등 교과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10종을 훌쩍 뛰어넘지만 검토하라며 주어지는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다. 교과서가 전달되고 선정을 위한 심사표를 작성하기까지 교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고작 3~4일인데, 두어 권의 교과서를 보기만도 턱없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면서 교과서의 종류와 질이 매우 다양해졌기에 이제 교과서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학교와 학생의 처지를 고려해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는 검정제의 취지를 살리는 대전제다.

이 부족한 시간이다. 공식적으로는 한달이라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교육청에 보고할 시한 등 대부분 행정 절차를 밟는 일에 쓰여 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간에 쫓기며 형식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이, 교과서 선택의 기준은 왜곡되기 쉽다. 대형출판사의 책을 선택하거나 많은 학교가 채택하는 교과서로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2000년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검정 때만 해도 한 교과에 8~10종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검토할 여력이 어느 정도는 있었기에 출판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내용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10종이 훌쩍 넘어가는 교과서들의 내용을 교사들이 꼼꼼히 따져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유력 출판사들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평가와 같은 일 제교사가 있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된다.

● 정보 차단으로 인한 정보 부족

교과서 선택의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도 교사들에게 그와 관련한 지식이나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선정 과정과 방식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데에 기인하는 바 크다. 교과부는 공정거래 위반 및 채택 관련 비리를 우려한 결과, 교과별 교사모임의 관련 연구물 참고는 물론이고 출판사 측의 도서 설명 자료를 제공받는 일을 일체 금하고 있다.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지역 교육청이 학교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일부 교과별 모임에서 인터넷이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출판사별 교과내용 분석표 등을 인터넷상에 올려 특정 검정도서를 간접

홍보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과별 교사 모임 등에서 인터넷이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출판사별 교과내용 분석표 등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경우, 특정 검정도서를 간접 홍보하여 검정도서 선정의 공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되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사들이 교과서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란 오직 그 교과서의 검정 통과 이유, 수정·보완 사항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제한한 극히 몇 가지 사항 뿐이다.

● 교사에 대한 지나친 통제

교사들이 교과서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일 교과 교사의 담합 방식을 이유로 모든 교사는 개인별 심사표를 제출할 뿐, 채택과 관련한 사전 회의 및 조율을 할 수 없다. 수학과와 경우만 해도 14종의 검정교과서가 있는데, 이것을 3~4일만에 혼자 읽고 분석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말인가? 동교과 교사들 사이의 토론을 활성화시켜도 부족할 판에 교육청은 도리어 이를 금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허울뿐인 교과서 선택권

수업 자료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과 목표에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검정교과서는 이미 검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것이든 교재로서의 자격은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사가 학생들의 상황이라든가 자신의 수업 방식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교과서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현행 채택 과정은 교과서를 3배수를 추천하는 것으로 교사의 역할이 끝난다. 교과와 아무 관계도 없는 학교운영위원들이 3배수 추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같은 과목 교사가 3인 미만일 때는 인근 학교 교사들을 선정 작업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의 학생들을 가르칠 교과서를 왜 교육내용 전문가도 아닌 학교운영위원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지, 이웃학교 교사로부터 하여금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지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나. 검정 교과서 자체의 문제점

● 검정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차별성 없는 교과서

현재 교사들이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교과서를 정독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교과서 자체가 차별성이 별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검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교과서가 고만고만한 내용과 형식을 지닌 탓이다. 검정을 통과할지가 최우선 과제가 되기 때문에 집필자들이 교육과정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안용순 전국국어교사모임 대표는 “수준별, 지역별로 차별화한 교과서가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별반 다르지도 않은 교과서를 23종이나 발행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고 말했다. 또 조자룡 전국영어교사모임 대표는 “교육과정에 지문의 주제가 세세하게 규정돼 있다 보니 교육과정에 충실하기만한 교과서가 학생들의 현실과 자꾸 동떨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 지나치게 큰 교과서의 비중

학교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

게 큰 것 역시 문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 자료 중에서 좀더 비중이 큰 자료일 뿐이다. 교육은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것이며 교과서만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교과서에 의한 의존도가 점차 약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교과서와 더불어 보조교재와 교육기자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교과서와 관련 학습자료가 함께 짜여진 키트 교재의 개발·활용이 확대 되어 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표준적인 교재로서의 교과서와 기타 교과용도서 및 보조 학습자료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교과서는 다양한 교육자료 중의 하나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교과서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채택 비리의 가능성이 생겨나는 건 아닐까? 교과서 공급과 채택을 둘러싼 부조리들을 줄이고, 지역적·학습자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이라는 검정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교과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 부정기적

인 교과서

검정

일본이나

프랑스

는 4년

주기의

정기 검

·인정을 실

시하여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발

행·공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은 교육과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검정 계획을 부정기적으로 수립·추진하기 때문에 출판업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판사들은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검정시기가 되면 철새처럼 교과서 검정에 참여하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현행 검정 교과서는 그 출판사만의 축적된 노하우와 고만이 녹아들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적다. 결국 출판사와 저자는 달라도 내용이나 구성은 별반 다를게 없는 고만고만한 교과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학습자에 맞는 교과서 선택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

교과서들 사이의 차이와 장단점을 읽어내야 할 교사들의 역량과 열정이 부족하다. 교사들은 전문성 부족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나 이것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지면을 요한다.

● 교육청의 지원 체계 전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비리 근절'에 지나친 관심을 쏟는 나머지, 정작 좋은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돕는 지원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연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들 중에는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로 바뀐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교과서를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3. 좋은 교과서 채택을 위한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 교육청이 채택 비리 근절에만 관심을 쏟을 게 아니라 교사가 좋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검정 교과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 주도 하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 연구 공모를 통한 교과서 분석 관련

교과모임 활성화

기존의 자발적인 교과교사모임을 활용하면 좋다. 교과교사모임의 경우 대부분 교수법이나 교과에 대한 열정이 큰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모제를 통해 공식적으로 교과서 비교분석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교과교사모임의 연구성과를 학교현장에 제공한다면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교과서 선택을 위한 교과토론 활성화

좋은 교과서 선택을 위해서는 교과 교사들 사이의 토론이 필수적이다. 교사들의 활발한 토론이나 협의가 특정 교과서 채택을 위한 담합이 될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교과서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사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력이 오랜 교사들은 학생들한테 맞는 교과서를 선별하는 경험적 지식이 있는가하면, 젊은 교사들은 교과서를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일을 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과 담합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고 전환이 요구된다.

◎ 교과서 선택 관련 다양한 연수 제공

「교과서 채택 매뉴얼」제공

국정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은 과연 교육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의 능력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교과서의 다양한 개발을 부추기며 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교과서를 채택하는 지금의 학교 풍경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 답은 'NO!' 일 수밖에 없다. 제

아무리 좋은 교과서가 개발된다 한들 교과서들 사이의 차이를 간파할 교사의 눈이 없어서, 교육청의 지원체제 및 마인드가 부족해 질높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채택되지 않는다면 좋은 교과서가 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과서 채택 매뉴얼'은 교육청 차원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교과서 채택 기준표의 예

구분	평가 내용
학습 요소	• 단원별로 중요한 기본 개념과 핵심적인 내용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오류 유형	• 출처 및 근거가 확실하고, 내용상의 오류는 없는가? • 사진, 삽화, 도표, 통계 자료 등은 정확하고 선명하며 신빙성 있는 최신의 것으로 제시하였는가?
실현 가능성	• 실제의 교수·학습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의 '방법·평가'에 제시된 내용이 실현 가능한가?
흥미와 이해	• 내용과 용어가 발달수준에 적합하고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가? • 문장은 간결 명료하며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진술되어 있는가? • 사진, 삽화, 도표, 통계 자료 등이 학습의욕의 고취와 흥미 유발이 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었는가?
구성 및 조직	• 내용전개는 학습 위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직되었는가? •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적인 영역에 이르면서 문제점과 그 이치를 따져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단원의 학습목표와 제재의 성격에 따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조직되었는가? • 준비·확인·보충·심화 학습자료 등이 학생 성취 수준에 따라 활용하기에 적절한가? •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창의력과 응용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조직하였는가? • 단원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 해결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이용의 편의성	• 검정도서를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차례, 단원, 찾아보기 등이 잘 정리되었는가?
디자인	• 판형, 색도 등 인쇄와 편집 체제는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잘 되어 있는가?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의 바람직한 방향



민병관 || 서울 청량고등학교 교장

1. 들어가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교과서 정책은 시장의 자율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교과서의 국·검·인정 구분, 검·인정 심사, 교과서 개발과 공급, 교과서 채택 등 교과서를 둘러싼 제반 요소들에 모두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가 되고 있다. 이는 질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게 하고, 학교에서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교과서가 선정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신장시키려는데 그 궁극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교과서의 최종적 수요자가 학교의 교사와 학생이란 측면에서 볼 때 교과서의 채택은 교과서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물론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과서의 활용적 측면은 피드백 되어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과서 정책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교과서의 채택이 정책수단으로서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 좋고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되고, 엄격한 검·인정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된 교과서일지라도 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채택 되어질 수 있다.

질 좋은 교과서 채택을 위하여 본교를 위시한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남은 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2. 질 좋은 교과서 선정을 위한 학교의 노력

가. 선정 예비 단계

검정교과서가 학교에 도달하면서 사실상 교과서 선정 작업은 시작된다. 물론 교직원 연수를 통하여 검정교과서 선정 절차와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본교는 학교 도서관에 검정교과서를 전시하였다. 검정교과서 전시와 함께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 제공한 '집필진 해설서'도 함께 전시되었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하는 '검정 심사 결과표'와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제공한 '도서별 평가자료'를 안내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 각 과목별 '검정 심사 결과표'는 교과별 심사에 따라 등급을 표시한 자료로, 영역별 등급수준이 교과서를 선정하고자 하는 학습 환경과 학생들의 여건에 적합한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어졌으며, 서울시교육청의 '도서별 평가자료'는 과목별로 수준에 달하는 다양한 검정도서, 그리고 선정과정에서의 부족한 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해 주었다. 다만 '집필진 해설서'는 종래와 달리 2쪽으로 축소되어 각 발행사 교과서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학교는 검정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질 좋고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되고, 엄격한 검·인정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된 교과서일지라도 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채택 되어질 수 있다.

2011학년도 고등학교 전시 대상 도서

교과목	종수	교과목	종수
국어(상)	16	음악	3
국어(하)	16	미술	5
국어 e-교과서	16	보건	3
도덕	5	공업 입문	3
사회	9	기초 제도	3
한국사	6	정보 기술 기초	2
지리부도	8	상업경제	4
역사부도	2	컴퓨터 일반	3
기술·가정	6	회계 원리	8
체육	4		
교과서			106
e-교과서			16

교과서 평가 기준 항목(교육과학기술부 예시)

평가 영역	평가 기준	
I. 교육 과정	1. 교육과정 부합성	2. 학습 분량의 적절성
II. 학습 내용 선정	3. 내용 수준의 적절성 5. 중립성	4. 정확성 6. 학습동기 유발
III. 학습 내용 조직	7. 효과성 9. 시각 자료의 체계성 및 효과성	8. 단원, 학년간 연계 및 계열성 10.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
IV. 교수 학습 활동	11.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13. 학습 참고 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12. 교수·학습 활동의 유용성
V. 학습 평가	14. 다양한 평가 활동	15. 종합적 사고력 평가
VI. 표현 표기 및 외형체제	16. 표현 표기의 정확성 및 가독성	17. 편집디자인 및 내구성

도서명	국어(상)	사용학년	고교 1년
발행사	○○○○	총페이지수	○○○
저자	□□□ 외 △인		
평가 의견			
1. 대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 들어가기'에서 단원의 목표를 알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단원 표지'에서는 대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제시함으로써 생활 속의 국어 학습을 지향함 · '대단원 학습 목표'에서는 서로 통합하거나 연관 지어 학습하면 효과적인 성취 기준들을 학습 목표로 제시함 · '대단원 구성도'에서는 대단원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성된 각 소단원에 대한 안내와 목표를 제시함 		
2.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감상 및 독해를 돕는 최적의 일러스트를 배치하고, 학습으로서의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생활 속 적용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학습의 흥미를 높이려고 유도함 		
3. 제재의 참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단원 학습' 활동 중 '이해와 적용' 활동에서는 학습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이해 활동과 영역 통합과 확장 학습을 이끄는 적용 활동을 함 		
4. 교수-학습의 실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 마무리하기'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의 성취도를 점검하고 내면화하는 활동으로 구성함 · 스스로 목표별 학습 성취도를 점검하고,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학습을 명시함 		
5. 교과서 내적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전 학년 학습 내용을 활성화하고, 제재 감상 및 독해 속에서도 '지식 검색'과 '맥락 이해'를 두어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갖도록 유도함 · 제재 감상 및 독해와 함께 이루어지는 '읽기 중 활동', 학습 목표에서 추구하는 내용 요소들을 성취하는 '이해 활동', 영역간 통합과 확장된 심화 학습을 추구하는 '적용 활동'으로 목표를 향한 과정을 단계화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을 하도록 구성함 		
6. 평가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단원 학습'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이해 활동과 영역 통합과 확장 학습을 이끄는 적용 활동을 함으로써 평가의 용이성을 꾀함 		

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교과서 발행사의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상대 판촉 활동을 차단하고, 출판사 관계 직원이나 저작자 및 도서판매업자의 학교 출입을 일체 통제 하였고, 출판사가 주최하는 도서 설명회 및 이와 유사한 모임에 교직원의 참석을 금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서 채택 시 교사와 학교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선정에 공정

을 기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질 좋은 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한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각 교과별 교과협의회를 개최하여 평가항목 및 항목별 점수를 결정하고,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표를 작성하였다. 교육과 학기기술부가 예시하고 있는 '교과서 평가 기준 항목' (6개영역 17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재구성(20개 평가기준)하였다.

교과서 채택 기준표의 예

평가 내용	점수 항목별 5점 만점
1. 교육과정의 성격에 맞고 교과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2. 단원별로 중요한 기본 개념과 핵심적인 내용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3. 단위 배당 기준에 알맞은 분량의 내용을 선정하였는가?	
4. 선정된 내용은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였는가?	
5. 선정된 내용이 타 교과 영역에 속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과 어긋남이 없는가?	
6. 실제의 교수학습과정에서 교과교육과정의 '방법·평가'에 제시된 내용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직되었는가?	
7. 내용과 용어는 학생의 발달수준에 적합하고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가?	
8. 내용의 전개는 학습위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9.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적인 영역에 이르면서 문제점과 그 이치를 따져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10. 준비, 확인, 보충, 심화 학습자료 등이 학생 성취수준에 따라 활용하기에 적절한가?	
11. 단원의 학습목표와 제재의 성격에 따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조직되었는가?	
12. 사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파생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13.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창의력과 응용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조직하였는가?	
14. 단원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해결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15. 판형, 색도 등 인쇄와 편집체제는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잘 되어 있는가?	
16. 문장은 간결 명료하며,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진술되어 있는가?	
17. 내용의 표현·표기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편수자료, 각종 법령에 잘 따르는가?	
18. 사진, 삽화, 도표, 통계자료 등은 정확하고 선명하며 신빙성 있는 최신의 것을 제시하였는가?	
19. 사진, 삽화, 도표, 통계자료 등은 학습의욕의 고취와 흥미의 유발,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였는가?	
20. 검정도서를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차례, 단원, 찾아보기 등이 잘 정리되었는가?	

나. 교과협의회 심사 단계

교사들은 교과협의회를 개최하여 검정도서 선정 기준 평가표를 기초로 교사별로 교과서를 심사하기 시작하였다. 교사들은 교과서의 수준,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교과서를 심사, 선정 기준 평가표의 점수 및 등위, 추천사유를 기록하였다.

교사별 작성이 끝난 후 각 교과 선정위원들의 선정기준 평가표를 토대로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 일람표를 작성하였다. 이 때 각 교사별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추천 순위를 정하였다. 각 교과별 대표교사는 추천 검정도서 및 추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감의 확인을 받은 후 교과서 담당부서인 교육연구부로 제출하였다.

교과(목) : 도덕 교과별 검정도서 평가표

출판사명 (저자명)	위원별 점수			총점	평균	추천순위
	○○○	□□□	△△△			
A	92	94	90	276	92	2
B	91	91	92	274	91	3
C	93	95	95	283	94	1
D	89	91	87	267	89	5
E	89	92	88	269	90	4

본교와 같이 대도시 대규모 학교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선정절차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대도시 학교라 하더라도 새로운 과목의 교과서나 1~2명의 교사만 있는 경우 당해 학교의 교사만으로는 공정한 교과서 선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인근 타 학교의 교사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하여 본교 교사와 함께 선정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교에서도 2011학년도 2학년에 새로이 사용할 제2외국어 교과서(프랑스어)선정시 프랑스어 교사가 본교에 재직하지 않아 타 학교의 교사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선정업무를 추진하였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단계

학교장은 교과협의회의 추천 검정도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다. 추천 의견서는 합산 성적의 3순위까지 정한 후 순위를 적시하고 추천 의견을 기록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회부하

였다. 종래와 달라진 점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회부 시 교과협의회의 추천순위를 적시하여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각 과목의 교과서를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을 인정 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들을 제외한 지역위원들과 학부모위원들은 주로 선정절차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대체로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질문하지 않았다. 교사들의 선정을 신뢰하겠다는 분위기로 이는 대부분의 학교가 마찬가지일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추천 순위를 적시하였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과서 자체의 질적 평가를 교사들의 평가에 의존하였다. 학교운영위원들은 검정도서 심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작성과 학운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학교장에게 제출하였다. 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과

고등학교에서 질 좋은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지원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는 절실하다.

교과(목) : ◇◇◇

추천 검정도서 및 추천의견서 서식

순위	출판사명	추천 의견
1	□□□□ (○○○ 외○)	
2	△△△△ (□□□ 외□)	
3	○○○○ (△△△ 외△)	

교과(목) : 지리부도

학교운영위원회 검정도서 심의 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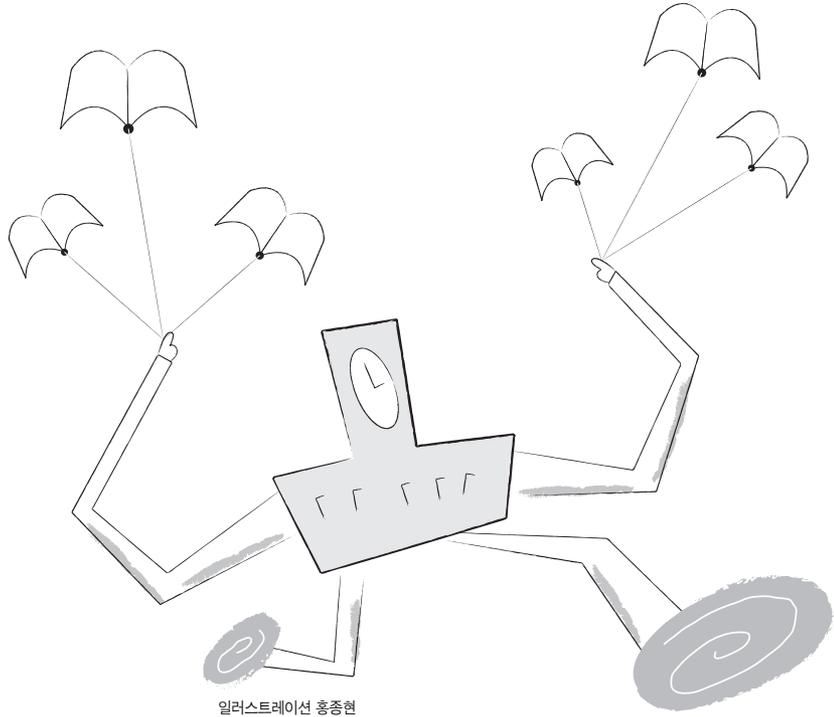
순위	출판사명	심의 의견
1	□□□□ (○○○ 외○)	•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만족하고, 실생활에서도 활용가능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지리부도로서 재미있고 수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2	△△△△ (□□□ 외□)	•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지리부도로서 사용자 중심으로 편집하였으나, 지형 표현이 충분치 못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흠이 있다.
3	○○○○ (△△△ 외△)	• 일반도와 주제도의 표현은 좋으나 활동에서 미흡하여 교과내용을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다.

서 선정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했다.

3. 남은 과제와 해소방안

고등학교에서 질 좋은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지원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는 절실하다. 2011학년도 사용 교과서의 경우 최종검정 합격은 7월 30일에 관보에 공고되었다.



이것은 예년보다 1개월 가량 늦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의 전시본은 8월말에야 도착하였고, 10월6일까지 채택과 주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그나마 비교적 여유있게 검토할 수 있는 방학기간이 아닌 2학기 학사운영에 분주한 9월에야 쫓기듯 교과서를 채택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나마 고등학교 과학과 같이 처음으로 인정도서로 구분 고시된 교과서는 아직도 학교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교과서의 최종 소비자는 교사와 학생이다. 따라서 질 좋은 교과서에 대한 판단은 교사와 학생이 다룰 수 있다. 물론 교사들은 교수자인 자신들과 학습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직접적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물론 또 다른 교과서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교과서를 전시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학생들

과 학부모가 관심을 갖고 교과서를 검토한 후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전 교과서 선정 방식 및 일정, 학생·학부모 의견 개진 방법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사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견을 개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 이루어진다. 2010년에 이루어진 교과서의 채택은 201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사용될 교과서이다. 아직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참여 시킬 의사가 있어도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도 다음 학년도 신입생들을 대변하기 어렵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최종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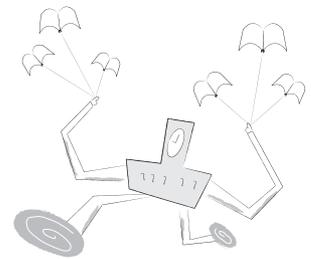


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채택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기능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교과서 채택 단계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들의 교과서 채택은 한번 채택하면 좀처럼 변경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개편 등으로 교과서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동일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물론 교과서를 자주 바꾸게 되면 새롭게 교사들이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설계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는 불필요한 낭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교과서가 있다면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과서의 소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하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서는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과서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교과서 채택의 학생참여는 초기 채택 단계가 아닌 교과서를 사용한 후 학생들의 반응을 피드백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한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교과서는 다음 학년도에 새롭게 변경하여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 역시 채택된 교과서를 사용한 후,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지역 교과서 ‘경상북도의 생활’ 편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라재주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장학사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학생들에게 사회과 학습의 지역화 및 자기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과서 ‘경상북도의 생활’을 편찬하였다. 연구위원 5명, 집필위원 12명, 삽화위원 2명, 사진위원 1명, 그리고 기획을 맡은 담당 연구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좋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오랜 시간 희로애락을 함께 하였다.

I. 들어가며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핵심적 내용은 국가 중심의 교과서 정책, 즉 국정 또는 검정 도서에서 인정 도서로의 교과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인정도서 중심의 교과서 체제의 변화는 생생한 지식과 지역의 모습을 교과서에 즉시 반영하여 교육자료에 참신성과 신속성을 부여한다.

인정 도서는 편찬과 인정 절차 등이 국·검정 도서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교과서 제작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유연성과 집필위원의 인정도서 편찬 역량, 예산 등의 문제는 교과서 질 관리의 어려움을 제기한다. 이는 지역 교과서 ‘경상북도의 생활’ 편찬에서도 여전히 문젯거리다.

2010학년도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3, 4학년까지 적용되어 ‘사회과 탐구 경상북도의 생활(4-1)’이 우리도 4학년 전체 학생에게 적용되었다. 지역 교과서에 대한 현장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 평가 없는 발전이 없듯이 각각의 논의를 공론화시키고 그 공과를 심도 있게 따져 더 나은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는 경상북도교육연구원 단위의 추후 과제로 기약해본다. 다만 집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시행착오를 중심으로 집필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회를 풀어보고자 한다.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두서없는 이야기이기에 필자 의견의 사사로움을 먼저 밝힌다.

II. 지역 교과서 집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지역 교과서의 내용

● 지역 교과서의 내용 적합성

내용 적합성의 기준은 국정 교과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지역 교과서에도 있어야 하고 같은 단원, 같은 제재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상북도의 생활’은 내용 구성의 일치라는 형식적 증거에는 부합하나 막상 단위 차시의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의 혼란이 존재한다.

국정 교과서 1단원 살펴보기에는 ‘지역의 위치 방위로 나타내기’와 ‘지역의 위치 좌표로 나



타내기' 순서로 내용 흐름이 구성되는데 지역 교과서에서는 '축척'과 '방위'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정에서 삭제된 3단원 '안내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으로 다가간다.

지역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및 흐름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체제 속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 1단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순서의 섞임이 있다. 이는 이 자료를 이용하는 지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교사가 지역 교과서를 충분히 숙독하지 않는다면 가르쳐야 할 내용이 빠져 있거나 단위 시간에 가르칠 내용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자료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 교과서 개편 작업에서는 국정 교과서와의 구성 일치를 넘어 내용 흐름에 대한 완벽한 일치가 구현되어야겠다.

●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텍스트 기술

한편 4학년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에 맞는 교과서 집필을 위해 한자어 등 어른도 쉽게 파악하기 힘든 단어나 개념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였다. 피상적인 설명이 아닌 쉬운 말로 학습자에게 다가간 지역 교과서가 학생들에게는 '재미있는 교과서', 교사에게는 '가르치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교과서가 되고자 하였다. 이것은 집필위원 모두에게 교과서 작업 시종의 고려 사항이었다. 다만 텍스트 진술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텍스트 분량을 조금 더 줄이고 삽화나 사진 등 자료 분량을 확대하여 학습 부담 경감과 흥미를 좀더 유발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연구진 내부에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2. 지역 교과서의 외형 체제

● 지역 교과서, 뛰어 넘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한계

텍스트의 내용이 국정 교과서와의 적합성이 높고 내용 구성의 논리성과 체계성,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는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흥미를 유발하고 그 흥미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편집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읽혀지지 않는 재미없는 교과서가 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 속담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그리고 한 눈에 들어오는 교과서는 충분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 유발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막상 국정교과서와 지역 교과서를 같이 펴놓고 본다면 지역 교과서는 딱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 어떤 초라함을 느끼게 한다.

국정 교과서는 집필자 이외에 편집자 4명, 전문 디자이너 3명, 표지 1명, 컷 1명, 삽화 5명에 전문 사진 지원 기관(연합뉴스, 엔씨이비, 이미지클릭, 뉴스뱅크)의 사진으로 교과서가 편집된다. 반면 지역 교과서는 집필자가 자기 원고의 기본 레이아웃을 정하고 2명의 삽화위원과 1명의 사진위원이 지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련된 디자인의 지역 교과서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인쇄소의 출판 역량은 중앙과 지역의 차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부분은 편집회의 내내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었다. 지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역전이 불가한 '출발선이 다른 경주'임을 느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한다면 좀더 많은 예산과 외부의 전문 디자이너, 전문 삽화가, 컷 전문가 등이 확보되어야 교과서 디자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출판사의 문제도 잠깐 언급해보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출판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교과서 발행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이 논리가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한번 낮아진 교과서의 질은 교육 과정이 개정되어 새 교과서를 만들고 업체를 바꾸지 않는 한 조악한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 교과서만은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이니 하는 지역주의 논리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면 자율 경쟁을 통한 자생력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자료와 텍스트의 적합성

지역 교과서 작업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또 다른 부분은 삽화, 사진 자료 등의 세련미와 텍스트와의 적합성 문제였다. 삽화는 교과서 내용의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삽화 자체적으로도 학생들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삽화가 집필 의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구도, 색 배합, 표현 기법 등의 문제로 N세대에 걸맞은 현대적 감각을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였다. 삽화와 사진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삽화와 사진이 표현해내는 내용이 텍스트와의 직접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꽃피는 4, 5월 아이들을 가르칠 땐 그 계절에 어울리는 의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필자가 평소 생각하는 바에 따라 사진 자료와 삽화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참고 자료 제공 후 삽화 위원과 사진 위원에게 자료를 요구한다면 집필 의도에 부합하는 삽화와 사진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북디자이너의 역할

독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텍스트와 구성체제가 아니라 사진과 삽화, 도표 등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학습자의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디자인도 판매 전략이 되고, 디자인에서 실패한 상품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화두이다. 이런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출판사의 북디자이너들도 교과서 개발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북디자이너들이 집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은 원고와 삽화, 사진으로 교과서를 디자인하는 것으로는 집필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때로는 편집의 비전문가인 집필자의 레이아웃에 북디자이너의 상상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런 엇박자들이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초라한 교과서의 탄생을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집필 회의가 아닌 편집 회의 시 북디자이너 참석은 담당 장학사 혹은 연구사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문서상으로 명기하고 강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출판사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및 질 관리 요구도 두 말할 나위가 없다.

3. 집필위원

● 집필위원의 역량 강화

집필위원이 문장 진술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국정 교과서에 대한 완전한 이해, 충분한 협의, 그리고 집필위원 간의 서로 다른 교과서관의 수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할 때는 평소 신문을 스크랩하고 광범위한 독서, 역사·지리·정치·경제·문화 등의 자료 수집을 습관화하고 통계청 같은 기관의 발표도 눈여겨보아야 하겠다. 집필 위원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과 수정을 거듭한 원고일수록 다듬어진 옥고가 된다는 사실이다. 어떤 원고이든 원안이 그대로 살아남는 경우는 드물다. 단순한 이 진리를 무시한 채 나의 원고가 옳다고 고집한다면 내 이름에 쌓이는 원고에 대한 잔인한 평가는 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 지역 교과서 집필에서의 지원 내용

지역 교과서 개발에서 느낀 또 다른 아쉬움은 지원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교과서 개발 용역자 등 유관 기관은 국정 교과서 개발 작업에 따른 진척의 정도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지역 교과서 개발에 따른 지도·조건, 연석회의를 통한 정보 공유 정도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부려 본다면 교과서 집필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서 집필과 관련한 연수라도 마련된다면 좋겠다. 이 모든 과정의 수혜자는 우리 학생들이라는 것을 새삼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III. 맺으며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학생들에게 사회과 학습의 지역화 및 자기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과서 '경상북도의 생활'을 편찬하였다. 연구위원 5명, 집필위원 12명, 삽화위원 2명, 사진위원 1명, 그리고 기획을 맡은 담당 연구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좋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오랜 시간 희로애락을 함께 하였다.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데 부담 없는 교과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지역 교과서 개편 작업에서 이러한 아쉬움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집필 과정에서 느꼈던 갖가지 활동에 대한 반성과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는데 4학년 지역 교과서 편찬 과정에 있었던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꺼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비록 일개 집필위원의 개인적 소회지만 더 좋은 지역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시군 교육지원청 3학년 지역 교과서 작업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술해 보았다. 이 글이 독자의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들고 있는 이 교과서가 '진정 지역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 교과서를 현장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볼까?' 라는 물음을 마음에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지식 창출형 교수 - 학습모델 : 창의 · 인성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 사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창의성 · 인성교육으로 전환하면서,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2009개정 교육과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수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교육에까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교적 교수방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대학이 2000년대부터 각 대학별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설치하여 대학교 교수자의 교수방법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현재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교수방법은 지식이나 기능을 교수자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형태의 교수법인 설명중심의 강의식(lecture) 교수법이다. 실제 정보 전달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암기 위주의 설명적인 교수방법이 대다수를 차지함을 보고하고 있다(예를 들면, 전성연, 1995 ; 황정규, 1985 등). 특히, 이성호(1989)의 연구에서 토론과 논술이 주가 되어야 하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수학과가 포함된 자연계 전공 과목에서 개설된 강좌의 82.6%, 자연계 교양과목에서는 90%가 설명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며, 탐구나 토의법으로 지도한 강좌가 0%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물론 교수방법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거나 혹은 비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강의 교수법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강의에 의해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여도 교수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강의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교수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에서 흥미와 관심 유발이 부족하다는 항목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더구나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수자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수방법이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개방성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독창적인 사고를 함양하기 힘들어 강의식 수업이 비효과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배천용, 이준욱, 최원형, 1996).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은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 지식을 활용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창의·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전달위주 강의법의 비판적인 문제의식에서 개발된 토론, 토의중심의 지식창출형 교육방법 모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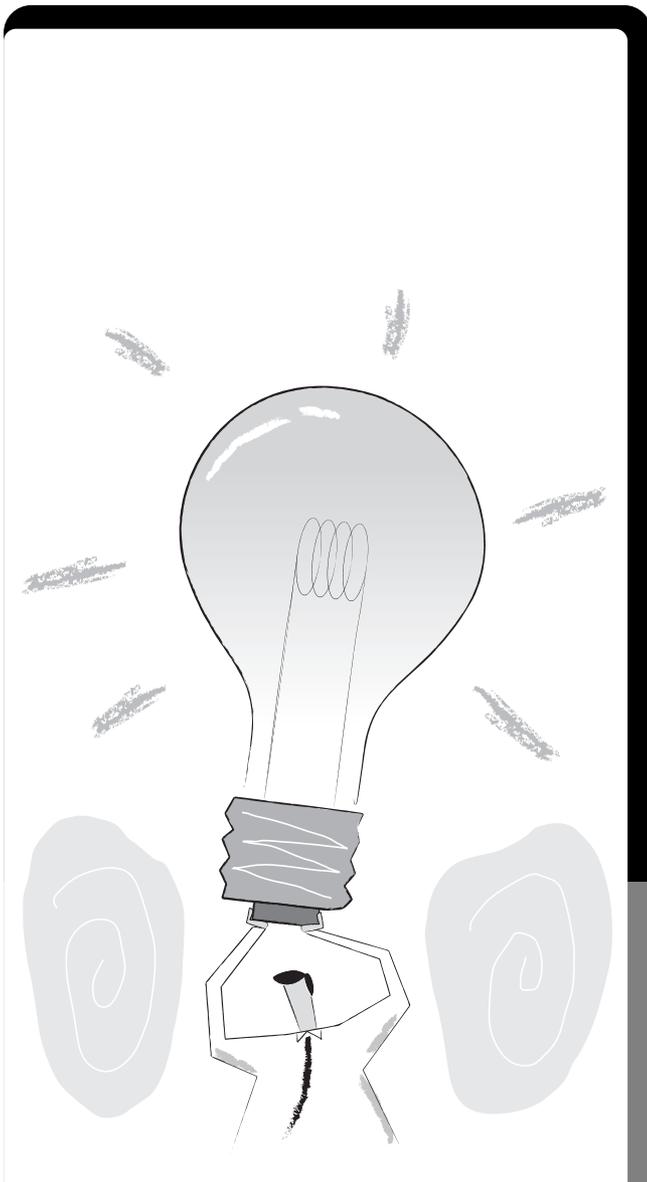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은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 지식을 활용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창의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탐구지향 교수법(inquiry-oriented)

필자는 자연 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한 언어로서 고안된 대학의 '미분방정식' 강좌가 수학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 발달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미분방정식 개론> 강좌에서 대학 수학 교실에서 미분방정식을 보다 의미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토의를 이용한 탐구지향적 수학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토의법은 공동 학습의 한 형식으로서 학습 집단을 일정한 조직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집단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학습자원을 매개로 토론을 전개하는 사회화된 학습형태이다.

토의학습에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하나의 통합된 결론을 기대한다. 사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근거 있는 내용을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처지에서 발언하고, 그 내용을 서로 비판, 보충, 검토하여 서로의 의견 대립을 지양함으로써, 통합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각자가 문제해결에 협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토의학습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상호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수업에서 이러한 형태의 교수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적 개념에 대한 사고를 공유하



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 토론 그리고 반박의 과정을 통하여 수학적 개념에 대해 정대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교수자는 다양한 발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의 유연성과 독창성을 자극하여 새로운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미분방정식 개론〉 수업은 학생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학기 초에 3~5명의 소그룹을 짜서, 소그룹 내에서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인다. 소그룹 토론을 마치고 '전체 토의' 시간을 갖는다. 전체 토의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소그룹에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면 학생들은 그 발표를 듣고 자유롭게 보충 설명 및 추가 질문을 하면서 개념들을 이해하고 공유한다. 학생들은 이 같은 토론 시간을 통해 주어진 문제에 대해 누구나 동등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비판하고 보완해 통합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미분방정식 개념을 반영하는 맥락 문제가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학생들은 소그룹토의와 전체 집단 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본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생들 자신의 수학적 활동과 토의를 통해 지도하고자 하는 수학적 아이디어가 재발견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교수자는 소그룹 토의 시간에 학생들 사이를 오가며 '수학적 토의'가 발전하도록 돕고, 그러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소그룹 토의 이후의 전체 토의에서 소그룹 토의 결과인 수학적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 상황과 해법에 함축되어 있는 수학적 의미를 탐구하고 수학적 토의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학적 의미를 조정하고, 공유된 수학적 의미를 확립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된 학습 자료는 활동지(worksheet), 쪽지(reflection journal), E-Journal, 포트폴리오(course portfolio), 팀 프로젝트(team project) 등이다. 수업 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였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공지 사항을 포함하여, 토의를 위한 활동지 게시, 과제물 제출,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자유 게시판과 토론방, 그리고 동기 유발 및 학습 보조를 위한 관련 사이트를 제공하였다. 인터넷 게시판은 학생들과 교수자 사이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위한 발판이 된다.

학습자 중심의 토의, 토론식 참여 수업모델

탐구지향 교실에서는 강의의 주체자가 학생이다. 교수자는 학생들의 사고를 '학습' 하는 학습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탐구지향 교수법은 학습자 중심의 토의식 참여 수업모델이 된다.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생의 현재 지식의 수준에서 출발하여 학생들은 토론과 토론을 반복하여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정당화해가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을 경험



하게 된다. 탐구지향교실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하는 수학자가 된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의 해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수학의 개념은 학생들 자신의 것이 되어, 수학의 발견은 자기 자신 안에 이루어진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학생들은 토의 학습을 통해 누구나 동등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과정에서 학생,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일종의 사회적 협상 과정을 익힌다. 탐구지향교실의 어느 학생의 <팀 프로젝트 마지막 소감문>에서 토론, 토의식수업이 주는 의미를 엿 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2005).

이번 한 학기 동안의 기억으로는 미분방정식 수업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수많은 숙제와 Reflective journal, 그리고 Worksheet들, 거의 다른 것에는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것 같다. 처음에 이런 식의 토론 수업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있을까? 수학 수업에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 처음에 상당한 의문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었다. 수업 시간에 생각을 가장 많이 한 수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기를 바란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것도 가장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가운데 그 동안의 쌓인 '정'으로 고생하면서 함께 자라온 형제처럼 느껴진다. 이 기회로 미분방정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것 같다. 임용고시에 이 과목이 빠져 있는 게 아쉽지만, 틈나는대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기도 한다.

수학 수업이 '토론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그 학습 효과를 의심하던 학생이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수업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 상호 간의 '정'이 생겼으며 더 공부한 과목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토론식 수업을 통해 수학에 대한 정의적 태도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촉진함을 의미한다. 또한 능동적인 수업참여, 수학 개념에 대한 자발적인 정의, 문제에 대한 의문의 제기 및 가설 생성 등과 같이 창의적인 사고의 계발은 스스로 탐구하고 사고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것은 탐구지향 교수-학습모델이 대학은 물론 초중등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지식 창출형 교수-학습모델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지는 않을까? \square

■ 참고문헌

- 배천웅, 이준옥, 최원형 (1996). 교수방법의 탐구.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 이성호 (1989). 한국의 대학교수. 서울: 학지사.
- 전성연 (1995). 대학의 교육과정과 수업. 서울: 학지사.
- 황정규 (1985). 한국 대학생의 교수-학습 방법의 실태와 문제점 탐색. 서울: 한국대학협의회.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05). 서울대학교 우수강의 시리즈: 권오남교수 이렇게 가르친다. 서울대학교.
- 교육과학부 (2010). 명수업 명강의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 강의가 없는 강의, “왜 그렇게 생각하니?” 질문만-학습자 중심의 토론식 참여수업 모델. 교육과학부, 꿈나래 21, 56-59.

중국 E-Learning 산업의 변화와 성장



안지영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중국 E-Learning 산업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 E-Learning 산업 활성화 정책 및 법규에 힘입어 정부 주도하에 발전해 왔다.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E-Learning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또한 이를 통해 E-Learning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은 기존의 교육방식과 학습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 평생교육, 평생학습 개념이 점차 중요시됨에 따라 지식의 변화를 즉각적이고 적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으로서 E-Learning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미 웹을 기반으로 한 교육시스템과 교육과정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E-Learning 산업은 1998년 '21세기를 향한 교육진흥행동계획' 문건을 기점으로 불과 12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과 빠른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실행 그리고 1억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 환경 등 정부의 지원과 유리한 시장조건 등을 등에 업고, 비록 중국이 E-Learning 산업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E-Learning 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E-Learning 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II. E-Learning의 개념

먼저 중국에서 사용되는 E-Learning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원정교육远程教育(Long-distance Education), 망락교육网络教学(E-Learning, 사이버 강의), 전자화학습电子化学习 등의 다양한 용어로 혼용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 E-Learning에 대한 용어의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에서 E-Learning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 전자학습, 가상학습 등의 미시적 관



점에서 시작되었음에 비해 중국에서의 E-Learning은 인터넷과 정보통신, 전파방송기술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원거리 통신망 교육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보다는 좀 더 거시적 관점의 전통적 교육방식에 대한 대안개념(代案概念)으로서의 교육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혹은 전자,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학습과 교학(教学)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한국과 유사하다.

현재 중국의 E-Learning 산업을 추진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력인정 교육과정인 원정교육(远程教育)과 중국 기초교육과정(K-12)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망략교육(网络教学), 기업연수를 위한 E-Learning, 어학 및 자격취득이 주된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E-Learn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산학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진 원정교육(远程教育)이 중국 E-Learning 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E-Learning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III. 중국 E-Learning 산업의 발전과정

중국 E-Learning 산업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 E-Learning 산업 활성화 정책 및 법규에 힘입어 정부 주도하에 발전해 왔다.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E-Learning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또한 이를 통해 E-Learning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중국의 E-Learning 산업을 주도한 주요 정부부처는 아래와 같다.

중국 E-Learning 산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교육부의 주요문건으로는

- ① “21세기를 향한 교육진흥행동계획(面向21世企教育振兴行动计划)”,

- ② “중국교육발전과 개혁강령(中国教育发展和改革纲要)”,
- ③ “2003-2007 교육진흥행동계획(2003-2007 教育振兴行动计划)” 등이 있다.

이 세가지 지도성 문건 중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Learning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건은 1998년에 발표된 “21세기를 향한 교육진흥행동계획”으로, 이 문건을 시작으로 중국은 청화대학(清华大学), 절강대학(浙江大学)¹⁾ 등 을 중심으로 중국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 힘입어 현대화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게 된다.

중국의 E-Learning 산업의 주요 정부부처

	부처명	역할
1	교육부 (教育部)	• 중국 E-Learning 교육의 주무 부처. E-Learning 교육산업에 관한 계획, 지도, 관리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함.
2	정보산업부 (信息产业部)	• 중국 E-Learning 교육과 관련된 설비, 기술개발 등과 관련 있는 부처임. 중국 정보산업의 주관 부처로 E-Learning 교육에 필요한 정보 산업 기반시설의 발전전략과 정책, 이에 대한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음.
3	발전개혁위원회 (发展改革委员会)	• 중국 주요 프로젝트의 신청 허가 및 추진에 전부 간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기구이기도 함.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 E-Learning 산업발전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IV. 중국 E-Learning 산업 현황

중국 E-Learning 산업 현황을

- ① 학력인정 교육과정,
- ② 중국 기초교육(K-12과정)에서의 사이버 강의,
- ③ 기업 연수를 위한 E-Learning,
- ④ 시설 교육기관에서의 E-Learning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대학중심의 학력인정과정으로로서의 E-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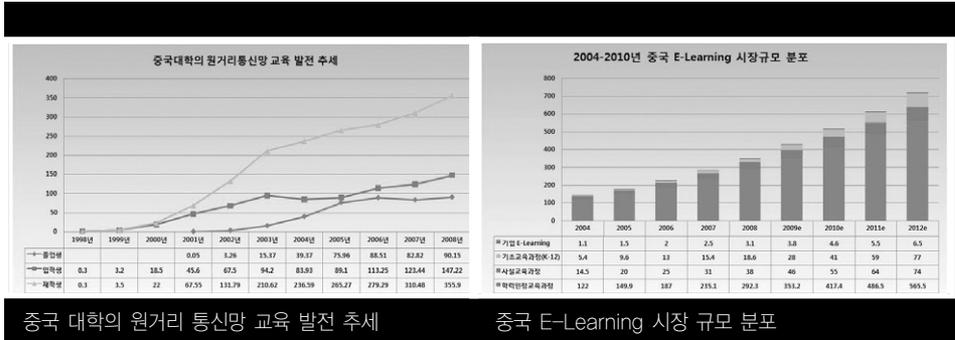
대학에서 학력인정과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E-Learning 교육은 다시 중앙방송TV대학((中央广播电视大学, 한국의 방송통신대학에 해당) 과정과 일반대학에서 제공하는 사이버대학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 방송통신대학은 교육부 직속기관으로 1978년 건립되었다.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 전국 44개소의 성(省)급 방송통신대학과 1,010개소의 시(市)급 방송통신대학 분교, 2,000여 개에 달하는 현(县, 한국의 읍에 해당)급 방송통신대학, 33,600개에 이르는 교육지점이 있다. 2008년 말 기준 등록 학생수는 225만 명으로 중국 전체 원거리 통신망 교육 학생수의

67%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일반대학에서 중국 교육부의 원거리 통신망 교육인증을 받은 대학은 2008년 말 기준 총 67개 대학으로 등록 학생수는 131만 명에 이르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과 일반대학의 사이버대학 학생수를 합칠 경우 총 356만 명에 이르며,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중국 전체 E-Learning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E-Learning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세력이라 할 수 있다.



위에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 E-Learning 시장규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 2009년은 431억 위안, 2010년은 518억 위안, 2011년은 615억 위안으로 매년 1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력인정교육시장은 전체 E-Learning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0년 417.4억 위안 시장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국가 교육제도와 기본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대학 E-Learning 교육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²⁾

ii) 중국 기초교육(K-12과정)에서의 E-Learning

중국에서의 기초교육과정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기초교육과정을 말하며, K-12(Kindergarten-12)라고도 한다.

중국 기초교육과정에서의 E-Learning 교육의 시작은 1996년 중국 초·중학교 101 사이버학교를 시작으로 한다.

초·중학교 101 사이버학교는

- ① 시장 양성기(1996~1999),
- ② 시장 개척기(2000~2002),
- ③ 시장 분화기(2003~2004)를 거쳐 발전되었으며,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E-Learning 교육시장은 기본적으로 포화상태이다. 그러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E-Learning 교육시장은 아직 시장 형성단계로 많은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 기초교육과정에서의 E-Learning은 보통 학교에서 교육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의 내용을 사이버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자료 혹은 강의를 구매하게 하는 형식의 B2C와 사이버학교가 먼저 자신들의 강의와 업데이트된 서비스를 초·중학교에 판매하

고, 학교가 강사를 섭외하여 이를 다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B2B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5년 기준 중국 내 사이버 초·중학교에 등록된 학생수는 2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일인당 학비는 2,000위엔 정도이다.³⁾

중국 기초교육과정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18.6억 위안을 차지하여 동년 대비 20.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몇 년간도 지속적인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여, 2012년에 시장규모는 77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iii) 기업에서의 E-Learning

중국기업에서의 E-Learning 산업발전은 1999년 IBM, Cisco System 등과 같은 해외 대기업들이 합작 혹은 독자(獨資)형태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작된다. 가장 먼저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세계 최대 E-Learning 회사인 Smart Force으로 2001년 중국 동누안(东软)그룹과의 합작형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2004년 이후 중국 E-Learning 기업은 우후죽순 생겨나 현재 100여개 이상의 중국 E-Learning 기업이 생겨났지만, 아직 산업가치만 형성된 단계이다.

중국 E-Learning 기업의 주요고객은 기업(정부, 기관 등 포함)이며, 산업영역은 일반적으로 제품 제공상, 판매경로, 고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고, B2B 형식으로 제공된다.

중국기업의 E-Learning 산업영역은 다시 솔루션 영역과 학습 콘텐츠 영역 및 서비스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솔루션 영역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저작도구와 학습을 관리하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다. 콘텐츠 영역은 학습 콘텐츠를 서비스 하는 영역이다.

기업 E-Learning 시장 중 학습 콘텐츠 시장이 전체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솔루션 영역이 시장의 30%를 서비스 영역이 58%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E-Learning은 주로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 광저우 등의 대도시에서 90%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IT, 통신, 전자, 금융, 재정, 정부 기관 등이 주 고객층이다. 중국 기업의 E-Learning은 양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E-Learning 제품과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아직 정보화된 수단으로 전통학습을 대신하는 E-Training 단계에 머물고 있다.⁴⁾

iv)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E-Learning

사설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E-Learning 교육은 주로 외국어와 학습보조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중국도 세계화로 인해 사회 및 학교에서의 영어능력과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영어시장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중국 전체 영어 시장 규모는 3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온라인 영어시장이 차지하는 시장규모는 10억 위안 정도이다.

아직 전체 E-Learning 시장에서 중국 온라인 영어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 인터넷 브로드망의 확충, 인터넷 교육개념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외국어 E-Learning 시장의 잠재력도 무한한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중국에서 비교적 영향력 있는 영어 사설 학습기관이다.



- 新东方在线 (New East): <http://www.neworiental.org>
- 戴尔国际英语 (Longman Schools): <http://www.dellenglish.com>
- 洋话连篇 <http://edu.bdchina.com>
- 华尔街英语(Wall Street English): <http://www.wsi.com.cn>

V. 결론

중국의 E-Learning 산업은 불과 10여 년이라는 시간동안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주도아래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비록 현재 중국의 E-Learning 산업이 아직 산업 형성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21세기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지식기반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고, 지식의 축적·활용에 따라 개인은 물론 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E-Learning 산업은 중국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 중국 교육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중국정부의 E-Learning 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등에 힘입어 기존 교육의 보완재가 아닌 새로운 교육의 한 분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¹⁾

주)

- 1) 1998년 중국 교육부는 청화대학(清华大学), 베이징요우디엔대학(北京邮电大学), 저지양대학(浙江大学), 후난대학(湖南大学)을 원거리 통신망 교육 시범학교로 정식으로 비준한다. 2000년 원거리 통신망 교육 시범대학은 31개소로 증가하여 2001년 교육부 비준을 받은 원거리 통신망 교육 대학은 67개소에 이르고 있다.
- 2) iResearch China Online Education Industry Research Report 2008-2009년에서 자료인용.
- 3) 전자부품연구원, 중국 E-Learning 현황, 전자정보센터, 2005.
- 4) 企业E-Learning产业研究报告, 中国远程教育(资讯), 2005.

상상을 현실로 펼쳐내는 즐거움

27개의 문장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들고 작업을 시작한 것은 일 년 반 전이었습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27개의 성취 기준을 이리 저리 엮어 단원을 구성하고, 각 단원에 가장 잘 맞는 틀을 세운 후, 적절한 제재와 활동으로 내용을 만들어, 보기 좋으면서도 내용을 잘 전달해 줄 디자인과 사진·삽화로 다듬어 가는 동안, 여름은 그 이듬해 겨울이 되었고 막막하기만 했던 처음의 종이 한 장은 4권의 교과서로 그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국어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검정 교과서로 바뀐 것이라 특히 더 부담스럽고 염려도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설렘과 특별함도 적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7차 교육과정 때 개발했던 고등학교 심화 과목 교과서들과는 여러모로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교과서를 개발하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1, 2학기로 나뉘어 있으면서, 한 학기가 '국어'와 '생활 국어'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권의 책을 한꺼번에 개발해야 하는 점이 두 배, 세 배의 공을 들이고 애를 먹게 했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생활 국어'의 성격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생활 국어'의 성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국어'와 '생활 국어'의 단원 구성과 체제가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차 교육과정처럼 활동책으로 하느냐, 영어나 수학 과목의 익힘책처럼 하느냐, 수준별 교재로 하느냐 등등 '생활 국어'의 성격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국어', '생활 국어'의 단원과 체제를 잡아가기 위해 꽤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계속했고, 결정한 후에도 혹시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닌지 고민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합격한 다른 교과서들을 살펴보니 합격된 중수만큼이나 단원 구성과 체제가 다양하더군요. 아마 다른 이들에게도 이 점이 큰 고민거리였나 봅니다.

..... 널찍한 조각무늬 그림

누군가 교과서 편집의 매력을 묻는다면 저는 "상상을 현실로 펼쳐내는 즐거움"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낱낱의 재료를 조합하여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인 후 이리저리 다듬어 하나의 조각품을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교육과정이라는 추상적인 뼈대에 제재, 활동, 사진·삽화와 같은 재료를 붙여 교과서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완성해 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진행해 가며 편집자인 저는 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런 제재로 내용을 전달하면 재미가 있을 텐데, 이 장면은 동양화 풍의 삽화로 표현해야겠구나, 이 부분에서는 이런 느낌의 사진을 써야겠



고미정 • (주)지학사 편집1부 과장

지, 이 활동은 표를 이용하여 편집해 볼까…….’ 머릿속에 수많은 그림을 그렸다 지
왔다 하며 편집을 진행하고, 제가 상상했던 내용이 저자 선생님의 손을 거쳐 좋은 원
고로, 삽화가의 손을 통해 멋진 삽화로 하나 둘씩 실현되어 교과서로 완성될 때. 그
때의 즐거움과 짜릿함은 교과서를 만들면서 겪게 되는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피
로와 스트레스를 이겨 낼 수 있는 ‘맛’ 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혼자서 묵묵히 완성해 내는 한 쪽짜리 좁은
캔버스 위의 그림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어울려 완성하는 널찍한 조각무늬
그림입니다. 재질도, 색깔도, 모양도 서로 다른 집필자, 편집자, 디자이너,
삽화가, 사진 전문가가 모여 각자의 개성을 모아 이루어내는 작품입니다.
다른 만큼, 서걱거리며 부딪칠 때도 있고 불편한 불협화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때도 있지만, 교과서를 만든다는 책임감과 자부심
으로 조율하고 합쳐가면서 그림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채워 나갑니다.

..... ‘스마트-편집자’가 되어라

솔직히 고백하면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은 사실, 꽤 괴롭고 힘든
작업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의 한 노파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
다지요. 큰 아들은 신발 장수, 작은 아들은 우산 장수여서 비
가 오는 날에는 신발이 팔리지 않으니 걱정, 날이 개면 우
산이 팔리지 않아서 걱정이었다고요. 워낙 소심한 성격이
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발 장수, 우산 장수를 아
들로 둔 노파처럼 편집자인 저 또한 걱정이 끊이지 않
습니다.

수없이 검토를 거듭했어도 혹시나 발견하지 못한 오자
나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선택한 제재와 활동을 현장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지, 책
을 완성한 후에도 합격이 발표된 후에도 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난 7차 교과서 때와 비교하여 교과서 작업은 더욱 복잡해지고, 편집자가 담당해야
할 분야도 훨씬 넓어져서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이 그만큼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전화는 물론이
고, 컴퓨터, 라디오, 텔레비전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스마트폰이 유행하는 것처럼 교과서 편집

교과서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우리 생활에 매체가 깊숙이 들어오면서 다음에 개발될 교과서는 이번과는 그 외형이나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2012년부터 사용될, 현재 개발 중인 고등학교 심화 과목만 하더라도 외형 체제가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여 우리의 고정 관념을 깨어줄지 몹시 궁금합니다.

에서도 다재다능한 '스마트-편집자'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선, 교과서 합격이 발표되면, 제 자리에는 두꺼운 공문들이 차곡차곡 쌓여 갑니다. 교과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오류 없는 교과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또 교과서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과서 수정, 보완의 절차와 서류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저 같은 '덜렁이'에게는 공문에 맞춰 여러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등록해야 하는 신경 쓸 일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지요. 또 교과서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각 기관들의 공문도 심심치 않게 있어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해야 할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또 하나, 이번 교육과정에 들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교과서를 CD-ROM이나 'e-교과서'로 재구성하여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각 교과서들이 고유한 매력을 바탕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고 각축을 벌이면서 교과서 시장에서의 각 출판사들의 경쟁은 이미 월드컵 결승전만큼이나 치열해졌습니다. 이제는 교과서가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마냥 기뻐하며 행복해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된 것이지요.

교과서 내용에 맞춰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와 수업 보조 자료를 담은 CD-ROM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책이 좋고 글이 좋아 편집일을 시작한 문과생인 제게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한 마음에, 스마트폰에서 버튼 몇 개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새로운 작업을 척척 실행하는 것처럼 '스마트-편집자'를 위한 '똑딱 CD-ROM'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상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e-교과서'의 경우, CD-ROM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터라 백지 상태의 막막함은 덜했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엄연한 교과서이고 앞으로 본격화될 전자 교과서의 시초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부담감은 훨씬 컸습니다. 또 처음이 언제나 그러하듯 기본틀이 정해지기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수월한 작업만은 아니었습니다.

..... 편집자로 느끼는 버거움

이런, 제가 너무 힘들다는 푸념만 늘어놓았나요? 사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도 특별히 내세울



만한 교과서 편집의 노하우가 있거나,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고생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교과서 편집을 담당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엄청난 스트레스와 싸워 가며 밤새 고민하고, 찾아가고, 되짚어가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점점 더 복잡해지고, 나날이 새로워지며, 한없이 치열해지는 교과서 개발 환경 속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느끼는 버거움과 고민에 대해 조금 투정도 부려보고, 공감도 구하고, 위로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교과서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우리 생활에 매체가 깊숙이 들어오면서 다음에 개발될 교과서는 이번과는 그 외형이나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2012년부터 사용될, 현재 개발 중인 고등학교 심화 과목만 하더라도 외형 체제가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여 우리의 고정 관념을 깨어줄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교과서 편집의 역할과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집필자, 편집자, 디자이너, 삽화가, 사진 전문가 등을 조화롭게 지휘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라는 관객에게 멋진 교향곡을 선보일 편집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 난제에서 해답 찾기

그런데 말이죠, 힘들다는 투정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는 오늘, 여기에서 이만 끝내려고 합니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씨줄, 날줄로 삼아 엮어 몇 백 쪽짜리 교과서로 만들어 낸 우리니까요! 현장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수업의 방식을 바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수업 자료를 든든하게 개발하여 현장의 수업을 선도한 우리니까요!

엷힌 실타레에서 실마리를 찾아 살살 돌려 풀어내듯, 난제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편집자라는 직업의 매력이자 재미니까요!

교과서 제도의 변화: 국정에서 검인정 시대로 국어 교과서에서 백석 시를 읽고 가르친다는 것

박종호 ·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사

내가 국어 교사로 국어 교과서를 들고 교실에 드나들기 시작한 건 1987년 무렵부터이다. 그 무렵 국어 교과서는 학년별로 한 권씩이었다. 고등학교에는 작문, 문법 같은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부여되었다. 새내기 교사라 '작문' 수업을 맡아서 맘을 뻘뻘 흘리던 기억이 난다. 그 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글쓰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데,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글을 쓰자고 매달렸으니까 말이다.

시간이 흘러 2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어 교과서는 정말 많이 변했다. 그 사이 교육과정도 5차, 6차, 7차를 지나서, 개정 2007 교육과정, 개정 2009 교육과정에까지 왔다. 7차 교육과정 때까지는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도 '국정 교과서'였다. 전국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단 한 권의 교과서로 배워야 한다. 이럴 때 단 한 권의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6차 교육과정 개편 때부터 '교과서도 교육 자료 가운데 하나'임을 천명했지만,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개정 2007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반가운 소식 하나가 날아왔다.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검정제도로 바꾼다는 것. 거기에 판형도 자유롭게 하고, 전자 교과서까지 내놓는다는 발표. 그리고 2009년에 중1 국어 23종 검인정 교과서가 나오고, 올해는 중2 국어교과서 15종,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16종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로 제한해서 말하자면, 7차 때까지 국정 교과서 단 한 권으로 국어 수업을 해야 하던 세상에서, 열 여섯 배로 늘어난 셈이니, 그야말로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진 것이다. 그렇게 넓어진 만큼 교과서도 걸모습은 그야말로 열 여섯 빛깔을 뽐내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컬러로 만든 책이 대부분이고, 컬러 삽화에도, 사진이며 편집 디자인은 그야말로 '잡지' 수준으로 올라섰다. 더 이상 칙칙한 종으로 만들어진 구닥다리 교과서는 없어졌다. 교과서를 받아든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알맹이는 어떤가? 교과서를 만드는 이들이 늘어난 것처럼, 알맹이도 그만큼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안고 갈래별로, 그 많은 바탕글을 이리 저리 뒤적여 본다. 관동별곡, 청산별곡, 봉산탈춤, 메밀꽃 필 무렵, 진달래꽃, 서시, 봄봄, 춘향가, 구운몽, 흥보가는 들 가운데 하나에는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 6차, 7차 국정 교과서에도 자리를 잡고 있던 작품들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 바탕글이 낯설고 새로운 것도 좋지만, 그 점만으로 새 국어 교과서의 질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말 할 수도 있겠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적어도 5차, 6차, 7차에 이어 나오는 바탕글을 놓고 교실에서 벌어지는 수업 장면을 떠올려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굳이 '새 술은 새 부대에'란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말이다.

백석 시인은 영화배우 만큼이나 준수한 외모를 지닌 신사, 일본에 유학을 가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신문사 기자와 영어 교사로 활동하는 등 아주 도시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낮은 평안도 사투리와 토속적인 정서로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시 세계를 펼쳐 나간 건 좀 의외가 아닐까 싶을 정도다.

교과서에서 백석 '시' 를 만나다

개정 2007 교육과정은 '맥락' 을 중시는 교과서, '논술 능력과 토론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서' 를 지향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미처 실현하지 못한 길이자,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과서를 만들자는 다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새롭게 나온 '검인정 국어 교과서' 바탕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점 하나를 꼽으라면 '백석' 시인의 시가 아주 많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로 말하면 16종 가운데, 9편이 실려 있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흰 바람벽이 있어」, 「고향」, 「수라」, 「노루」, 「국수」, 「여승」, 「팔원」, 「두보나 이백같이」가 실렸다. 7차 교과서에는 단 한 편(「여승」이 보충 자료로 들어가 있다.) 밖에 실려 있지 않던 것에 견주면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왜 백석 시인의 시를 국어교과서에서 이제야 만날 수 있게 되었나? 주로 1930년대에 활동한 시인인데, 지금이야 교과서에서 집중해서 실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백석 시인이 살아간 비극적인 삶과 연결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에 고향에 남아서 살게 되면서, 분단으로 인해서 남쪽에 알려질 수 없었다는 것. 남쪽과 북쪽의 이념 대결의 뒤편에서 어쩔 수 없이 묻혀야 했던 것 정도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단지 '해금' 시인이라고 그렇게 '폭발적' 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백석 시가 지닌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고 있음을 뜻한다. 방언을 살려 써서 지역 문학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복고적이고 전통적인 소재를 가져다가 세련되게 형상화해 낸 시적 성취가 이런 평가의 근거가 되었다고 본다. 이는 문학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시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시가 실렸는지, 그 시가 어떤 점에서 '교과서에 실릴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방언과 토속적인 정서,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부려 쓴 시들

백석 시인은 영화배우 만큼이나 준수한 외모를 지닌 신사, 일본에 유학을 가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신문사 기자와 영어 교사로 활동하는 등 아주 도시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낮은 평안도 사투리와 토속적인 정서로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시 세계를 펼쳐 나간 건 좀 의외가 아닐까 싶을 정도다. 일제의 압박이 심해진 1930년대 말에 만주로 건너간 뒤에는 또다른 시 세계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판,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출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덜움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재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앉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팍지배개를 하고 글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싸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팍 때어 울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환타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따름 해서는,
더러 나중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싯에 따로 외로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살개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바로 그 시기에 쓰인 시로, 나라 잃은 백성으로 타지를 떠돌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존재의 고독한 운명을 독특한 문체로 그려 보이고 있다.

이 시에는 먼 타지에서 아내와 가족과 떨어진 채 나 하나 감당하기에도 벅찬 처지에 놓인 화자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어느 목수네 집에 간신히 몸을 의탁한 화자는 어찌 다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슬픔과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에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한다. 그러나 여러 날의 괴로운 되새김질 끝에,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 '더 크고, 높은 것'을 깨닫게 된 화자는 다시 내일을 맞이할 힘을 얻는다. 어둠 속에 눈을 맞고 서 있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현실을 의연하게 견뎌 내는 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찌면 식민지 시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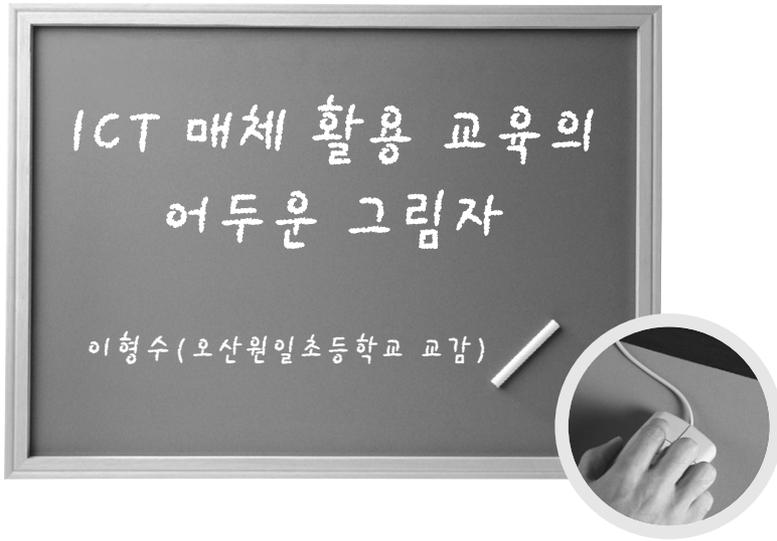
식인으로 시인의 자기 고백이랄 수도 있는 이 시는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한 울림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시를 읽고 자라는 아이들이 행복해 보인다.

「흰 바람벽이 있어」는 “흰 바람벽”을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활용하여, 지난날에 대한 이런저런 상념들을 스크린 위의 이미지와 글자들로 투영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아마도 흐린 전등 불빛에 셔츠의 그림자가 어른대는 벽을 바라보다가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것이겠다. 처음에는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던 옛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여 화자의 그리움을 자극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스크린의 자막처럼 글자들이 지나간다. 백석은 개인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삶이 모든 존재의 보편적 운명임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고향」은 정겹고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시이다. 이 시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나온다. 화자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아프다.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고향이 화자와 같다는 것이 밝혀지고, 화자의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이와 막역한 사이인 것도 드러난다. 화자는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를 만난 듯 반갑고 즐겁다. 간접화법이지만 대화 내용이나 인물 묘사가 세밀하여 바로 앞에서 주고받는 대화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정겹고 따뜻해 이 시를 다 읽다보면 저절로 마음이 환해온다.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될 무엇’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앉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뵈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넉넉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 「고향」



1. ICT 매체, 누구를 위한 매체이어야 하는가?

최근 교실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교수·학습 매체는 ICT 기반 자료이다. 방송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ICT 매체가 주종을 이룬다. 이들 매체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애니메이션, 사진, 그림, 소리 등의 파일을 코스웨어 또는 분절 자료 형태로 43인치 내지 32인치 TV모니터를 통해 교실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ICT 기반 교수·학습용 매체는 제작 기술의 전문성, 많은 개발 비용, 개발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에서 개발을 주도하기란 쉽지 않지만, 교육이 국가적 과제인 우리나라에서 이 정책을 조기에 주도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한때 중앙단위의 교수·학습지원센터(EDUNET)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교실수업개선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잘못 잡히고 사이버가정학습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지금은 에듀넷의 콘텐츠는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전국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조사한 결과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일부분에 불과했고, 그나마 찾

기 어려웠으며, 조회 수도 얼마 되지 않았다. 오히려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좋은 자료들이 있었다.

방송·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한층 편리해진 시기에 일부 업체에서 개발하여 서비스하기 시작한 ICT 매체는 사실상 우리나라 교수 매체 발달에 일정 부분 기여했고, 교사들이 수업에 ICT 매체를 많이 활용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들 업체에서는 초등학교의 교과별, 단원별, 차시별, 활동 주제별로 ICT 기반 매체들을 인터넷을 통해 교실 수업에 쉽게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수학교과를 예를 들면 단원, 목표(문제), 동기유발, 주요활동, 풀이과정, 정답 등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과학교과와 경우 실험도구, 실험방법, 실험결과 등이 제공된다. 마우스를 클릭만 해도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활용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하기 편리해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자료를 선호한다. 마치 인터넷 홈쇼핑으로 김치를 사서 먹으면 직접 김치 재료를 사서 만드는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것과 같다거나 할까?

이러한 ICT 기반 매체 시장의 발달은 ICT 매

체 콘텐츠 개발 서비스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강국의 면모를 보여준 한 사례이기도 하다. 머지않아 초·중등학교에서 IP TV가 상용화되면 ICT 매체 콘텐츠 서비스는 컴퓨터 자판이나 마우스를 사용하는 대신 리모콘 하나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현재 공급자의 일방적인 매체 제공에서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로 더욱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 매체 콘텐츠 서비스의 전문화와 기업화는 부정적인 면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교과서와 분필 수업에서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ICT 매체 활용 수업으로 바뀐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거나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교사의 역할이 매체에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사가 ICT 매체에 의존하여 클릭 수업을 할 때 '학생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재구성하거나,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들 매체가 갖는 일방통행의 특성상 교수학습활동에서 이들 매체가 중심에서 있고 학생은 한 걸음 뒤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때 EBS 방송으로 스타 강사의 강의를 교실에서 수업 중 TV로 보여주면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 주장은 근거가 분명하고 옳은 것일까? 최근 초등학교 어느 교실에서 ICT 매체에 의존해 클릭 수업을 하자, 학생이 '선생님 저도 공부 가르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학생이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학생의 말은 타당성이 있는가?

2. 교수 학습 매체 활용의 핵심

가. 학습자의 특성

교수 매체는 학습자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지적인 수준, 학습 속도, 사고의

깊이 등의 지적 특성과 학습 동기, 흥미, 태도, 욕구 등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집단의 특성에 맞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CT 매체는 교실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가공하거나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서비스하는 매체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먹을 경우 약물 오·남용으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처럼, 학생의 특성에 맞지 않는 ICT 매체를 활용하면 교수 활동의 결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학습자의 수준, 독서 능력, 지능 등이 낮으면 구체적·감각적인 매체가 효과적이고, 반대의 경우 문자나 언어 등 추상적이 매체가 효과적이라(변영계·이상수 2006)는 연구 결과나, TV(동영상)는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는 시·공간적 이미지 제공, 또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역사적 사건 등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고, 문서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다루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셀몬(Salmon), 1979) 연구결과가 있다. 도시나 농·어촌, 수준이 높거나 낮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ICT 매체를 활용해 클릭 수업을 한다면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수 매체는 학습자가 특정 주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고의 유형과 부합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교수 매체의 종류에 따라 학습 결과가 달라지고,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다양한 교수 매체를 사용해야 한다. '열' 개념 학습 시 '뜨겁다' 개념은 먼저본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적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온도 몇 °C' 개념은 온도계로 측정된 숫자적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표상과 경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베이트(Bate), 1993).

나. 교과 내용

교수 매체는 교과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교과 내용은 일종의 지식 체계로서 교과와 단원으로 정리되어 있다. 교과 내용의 학습과제를

개념, 원리, 문제해결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때, 과제의 유형에 따라 교수 매체는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학습에서도 매체는 다를 수 있다. 삼각형에 대한 개념학습은 삼각형 그림이나 실물 자료에 언어적 설명이 따라야 하고, 이상주의에 대한 개념학습은 언어적 설명과 인쇄자료가 효과적이다(변영계·이상수 2006). 단위 차시가 개념학습일 경우에도 학습 집단과 학습과제의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 전략, 또는 학습 활동이 세분화되어야 최적의 매체를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교과 내용일지라도 교사와 학생에 따라 교실마다 교수 매체가 다른 것이 당연하다.

다음은 학습자의 최종 행동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매체 선정이 달라진다. 최종 학습목표가 '변별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등의 행동에 따라 매체는 다르다. 가령 '동물의 소리를 변별할 수 있다'는 내용과 행동 목표일 경우 동물 사진과 악기 소리가 결합된 ICT 자료나 동물의 소리가 담긴 영상자료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ICT 기반 매체를 통해 서비스 되면 교수 활동이 매우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수학교과와 '계산할 수 있다'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풀이과정과 정답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거나, 과학교과와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실험방법과 실험결과를 학생들에게 ICT 매체로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 매체를 활용한 결과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사고가 길러질 것인가?

계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고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다른 학생에게 풀이과정을 설명하거나, 다른 풀이방법을 알아보면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체이어야 하고, 실험으로 알아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험결과에 대해 학생 스스로 실험 계획 수립, 실험 결과 예상, 실험 및 관찰, 결과 도출 등의 과정으로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어야 좋은 매체이다.

다. 학습유형별 제외되어야 할 매체와 좋은 매체

학습 매체는 학습 유형별로 제외되어야 할 매체와 좋은 매체로 분류할 수 있다. 학습의 유형을 지적기능, 언어정보, 인지전략, 운동기능, 태도 등으로 분류할 때, 좋은 매체의 공통점은 학습자의 반응에 대해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가능한 것이며, 제외되어야 할 매체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

생, 학생과 학습과제 사이에 상호작용과 피드백 기능이 없는 매체이다(가네(Gagné), 1992).

가네의 연구 결과를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ICT 기반 매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상호작용과 피드백 기능이 불가능하며, 교사의 고도의 수업 지도성이 필요하다. 국어교과나 영어교과의 낱말 카드, 수학교과와 지오보드, 과학과의 실험 기구, 양질의 학습지 등은 상호작용과 피드백 기능이 가능한 좋은 매체의 예이다.

3. ICT 매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ICT 매체 활용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의 교실 수업을 참관했을 때 ICT 기반 매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본적은 없다. 우리나라 교실에는 43인치 대형 TV 모니터가 교단 선진화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들의 교실에는 자그마한 TV가 전부다. 그 나라의 교사들이 사용하는 매체는 우리의 교실에 비하면 그야말로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교사들





학생들에게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 중심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언어영역에서는 의사소통능력, 문화다양성, 글쓰기 독서·토론 능력 등을 기르고, 수리영역에서는 문제해결력·분석력 등을 기르자는 것이다.

가네(Gagné), 1992)의 학습유형별 제외되어야 할 매체와 좋은 매체

학습 유형	제외 되어야 할 매체	좋은 매체
지적기능	• 상호작용과 피드백 기능이 없는 매체	•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 제공을 위한 매체
언어정보	• 실물, 시뮬레이션	• 언어적 메시지와 정교화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매체
인지전략	• 상호작용과 피드백 기능이 없는 매체	• 지적 기능과 동일한 매체
운동기능	• 실습과 피드백 기능이 없는 매체	• 실습과 교정적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매체
태도	• 피드백 기능이 없는 매체	• 실제적 인간 모델과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는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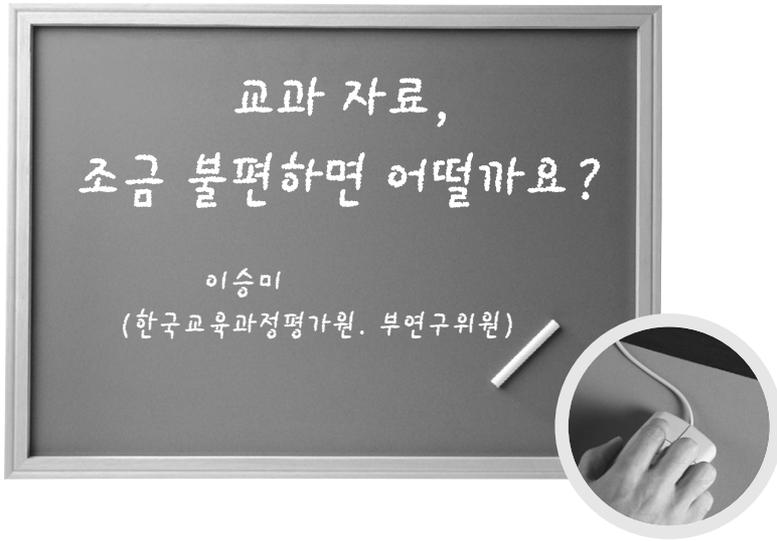
이 종이에 직접 제작한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왜 ICT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도 교수 학습용 자료를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교사가 직접 제작해서 수업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에서 제공하는 ICT 매체 중에서 2-3분 분량의 동영상만 활용한다는 교사도 많다. 그러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ICT 기반 매체의 코스에 의존해 마우스로 클릭하는 수업은 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삼가야 한다.

2010년부터 학생들의 창의·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 국가적 아젠다로 대두되어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 중심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언어영역에서는 의사소통능력, 문화 다양성, 글쓰기 독서·토론 능력 등을 기르

고, 수리영역에서는 문제해결력·분석력 등을 기르자는 것이다. 사회영역에서는 시민의식, 개방성, 지역사회 참여, 자원봉사, 과학 영역에서는 상상력과 탐구력, 팀 단위 실험·탐구활동 등의 능력을 기르고, 예체능영역에서는 독창성, 감수성, 단체경기, 무용, 그룹창작 능력 등을 길러야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평가 방법도 바꾸고 평가 결과도 상세히 기록해서 이력을 관리 한 후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교실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ICT 기반 매체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2000년의 늦가을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나는 교사들의 흔한 직업병 중의 하나인 성대의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급기야 교실에서 마이크를 사용해도 학생들이 듣기에는 너무 작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칠판에 '선생님이 목소리가 안나오니 조용히 해주렴.', '수학 익힘책 53쪽 풀고 검사받으러 나오기!' 등을 써내려가다가, 그 즈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교사용 전자 교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나에게 40분의 수업 시간에 맞추어 학습 목표에서부터 교과서의 지문과 그에 따른 활동, 그리고 정리문제까지 세트로 제시되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고맙던지! 내가 준비했던 그 어떤 수업보다도 매끄럽게 체계도 잘 잡혀 있고, 친절한 성우의 목소리로 교육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1, 2주가 흘러갔고, 내 목소리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쉬는 시간, 키가 크고 단정한 단발머리 여학생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눈을 반짝이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클릭하면 안될까요? 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선생님은 좀 쉬실 수 있잖

아요.”

나는 '생각해보자' 라고 밖에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이를 되돌려 보내고, 프로젝션 TV의 화면을 켜다. 그리고 그 이후 나는 되도록 구식이 되려고 노력했다. 수학문제는 칠판에 써서 풀고, 오르겐을 직접 연주하였으며, 잘 못해도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달리고 땀 흘렸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다.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이면 제발 운동장에 나가 뛰어 놀라고 잔소리를 입에 달아야 했고, 하루에 5분 정도 학습의 누군가에게 책을 소리내어 읽게 하고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어려워 졌다. 그리고 어느새, 첫 눈이 내리거나, 진도를 다 마칠 무렵 선물처럼 책이나 영화 이야기 해주던 습관도 버렸다. 눈 앞에 화려한 영상과 그에 걸맞는 소리가 곁들여지지 않는 이상, 학생들을 집중시키거나 참여시키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더불어 전자 교과 자료 제공 업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십 여 년 가까이 세련된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전자 교과 자료로 사랑받던 그 업체에 대하여, 작년에 동료 교사들의 호감도가 뚝 떨어진 것이다. 몇 동료 교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동영상 중심으로 한 새로운 후발 업체의 포맷이 활



수업은 교육내용을 내면화하기 위한 사고(思考)의 장(場)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고를 한 시간의 수업 시간 안에 가승 전-결로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특정의 매체에 국한하여 다룰 수는 없다. 또한 지식의 구현체로서 교사는 가르치는 교육내용을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실제의 행위로 표현하기를 즐겨야 한다.

용하기에 더 좋다는 것이다. 올해 초에는 선발 업체에서 동영상을 대폭 수록하였다는 광고를 선보였다.

우리의 공교육에서 전자 교과 자료의 등장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된 교육정보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97년도에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실습실용, 교원용 PC보급, 학내 전산망(LAN) 구축, 교단 선진화 장비 보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 정보화기반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교사에게 개별 PC가 지급되고 거의 모든 교실에 대형 프로젝션 TV가 설치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2000년 8월에는 초등학교 전자 교과 자료를 수록한 ○○○의 사이트가 오픈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는, 1990년대 후반,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교실 붕괴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사의 언어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환경과 교육 방법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교육 안팎으로 크게 환영 받았다. 그리고 교사들이 느끼기에 당시의 유능한 교사와 무능한 교사의 판별 기준은 PC를 얼마만큼 다룰 수 있는가에 따른 것이었다. 그 시절, 타의반 자의반으로 명예 퇴직을 선택하였던 수많은 원로 교사들은 PC에 능숙하지 못하였던 자신들의 무능력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전자 교과 자료에 담을 수 있는 지식에는

그 한계가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교과 자료를 활용한다고 해서, 그 자료 자체가 학생들에게 저절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어떤 자료이든지 간에 Vygotsky(1978)가 언급한 학생들의 근접발달영역을 적절히 잡아 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의미있게 해석되기 어렵다. 그것은 전자 교과 자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영어 원어민들의 대화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내용이 저절로 이해되기만 한다면, 그 얼마나 좋을 일이겠느냐마는! 더욱이 장상호(199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료가 학생들에게 의미있게 해석되지 않으면서 그 양이 많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둘째, 전자 교과 자료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여도, 지식의 온전한 모습을 담을 수 없다.

Oakeshott(1967)에 따르면, 지식은 정보와 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는 사실로 구성되어 항목화될 수 있으나, '판단'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화될 수 없다. 즉, 전자 교과 자료에 수록된 것은 지식의 구성요소 중에서 항목화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 '정보'는 분석을 통하여 전자 교과 자료에 수록될 수 있지만, '판단'은 그렇지 못하다. 정보를 실제로 사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판단'은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표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전자 교과 자료는 자칫 '얕이 아니라 '이는 것 같음'을 이끌어내기 쉽다.

화려한 시청각자료인 전자 교과 자료를 보고 듣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감각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마치 내가 실제 세계에서 그 전자 교과 자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알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감정이입에 불과하다. 드라마나 영화의 사랑 이야기에 아무리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다만 그 생생한 감각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것에 만족하게 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전자 교과 자료를 통한 교수-학습은 학생들에게 생생한 감각의 기억으로 남게 되는데, 그 기억만으로도 학생들은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게 되기 쉬우며, 그 이후에 삶 속에서 그 배움을 복습하고, 실천하고, 발전해 나가는 일을 등한시하게 된다.

넷째, 전자 교과 자료는 '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전자 교과 자료에 제시되는 지식(엄밀한 의미에서 '정보')은 인간이 직접 구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자 교과 자료가 제시하는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이 되기 쉽다. 이 관점은 셋째와는 반대되지만, 결국 전자 교과 자료가 선택하는 매체의 이중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이미 무성 영화의 시대가 꽃피었던 1930년대에 W. Benjamin(1935)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배우와 직접적으로 관계 맺지 않기 때문에 쉽게 비평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들도 전자 교과 자료와의 관계로 인하여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그 지식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부터 가질 수 있다.

다섯째, 전자 교과 자료는 잘못된 인간상을 심어줄 수 있다.

앞서 지식은 인간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자 교과 자료만을 활용할 때, 학

생들이 접하게 되는 지식은 전자 교과 자료를 활용하는 교사의 모습에 국한된다. 말하자면,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열광하는 것은, 그것이 가진 중독성의 마법에 걸리기 이전에 그것에 열중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부터이다. 그리하여 나 대신에 클릭해 보고 싶다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부끄러움이라니!

물론 전자 교과 자료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궁한 가능성은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아이패드를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그 안에 탑재된 다양한 전자 교과 자료가 두꺼운 종이 참고자료들 보다 활용의 측면에서 더 뛰어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 교과서의 PC 뿐 아니라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전자 교과서도 개발되거나 활용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조차도 일 년에 반 이상을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은 무엇이고, 그 교수·학습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매체가 무엇인지, 그 매체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PC와 통신비를 지원해준 결과, 컴퓨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컴퓨터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조승원, 2010).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자 교과 자료를 활용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정책이 전자 교과 자료의 적극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섬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제안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 교과 자료는 적어도 학생들의 발달 단계가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과도하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Piaget가 제시하는 인지발달단계에 따르면, 아이들은 태어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를 거치며 성장한다. 그런데 언어, 기호 등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형식적 조작기 이전의 단계의 아이들은 구체적 사물을 대상으로 할 때에만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구체적 조작기를 거친다. 그런데 전자 교과 자료에만 지나치게 함몰될 경우, 구체적 조작의 경험을 놓치게 된다. 또한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에 전자 교과 자료에 지나치게 함몰될 경우, 나, 타자, 환경 모두를 전자 교과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유아 단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전자 교과 자료의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효과에 대하여 면밀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에서 도출된, 활용과 관련된 상세한 유의사항이 학부모 및 교사, 그리고 전자 교과 자료 제작자들에게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역으로 추상적 형식적 사고를 할 때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시청각 자료에만 함몰된다면 높은 사고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둘째, 교사들도 전자 교과 자료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와 프로젝션 TV를 잘 사용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더 나아가 매끄럽게 프레젠테이션하는 방식의 공개수업, 모범수업이 지양되어야 한다. 수업은 교육내용을 내면화하기 위한 사고(思考)의 장(場)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고를 한 시간의 수업 시간 안에 기-승-전-결로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특정의 매체에 국한하여 다룰 수는 없다. 또한 지식의 구현체로서 교사는 가르치는 교육내용을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실제의 행위로 표현하기를 즐겨야 한다. 그것이 악기의 연주이건 국어의 시를 읊

는 것이건 간에 말이다. 이때 교사로서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보다 그 표현을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교육내용을 배우고 표현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지식에 대한 태도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교사 교육과 임용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김**

참고문헌

- 장상호(1999). 발생적 인식론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조승원(2010. 11. 03). 인터넷 중독 학생 양산하는 교육청? 미디어 제주 <http://www.mediajeju.com>. 2010년 11월 5일 검색.
- Benjamin. W. (1935).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 최성만 역(2009).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서울: 길.
- Oakeschott. M.(1967). Learning and Teaching, In T. Fuller(ed.)(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Yale University Press. 43-62. 차미라 역(1992). '학습과 교수'. 유한구 · 김승호(1999).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론. 교육과학사.
-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조희숙 · 황해익 · 허정선 · 김선옥 역(2000). 비고츠키의 사회 속의 정신 : 고등 심리과정의 발달. 서울: 양서원.



■ ■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지선입니다.

사실 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되어 가기 때문에 처음에 교과서에 관한 에피소드를 생각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초·중·고, 총 12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도 말입니다. 그래도 자리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니 하나둘씩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 ■ 우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교과서를 가지고 저만의 참고서를 만든 경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적에도 수많은 문제집과 참고서가 학생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문제집과 참고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특정 문제집과 참고서가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택을 망설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가지고 저만의 참고서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교



과서에 꼼꼼히 필기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선생님의 설명을 차곡 차곡 적는 겁니다. 교과서에 적는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탈착식 메모지를 활용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혼자서 문제집, 참고서 등으로 공부하면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교과서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접한 모든 내용을 교과서에 적게 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참고서가 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과서가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교과서에 꼼꼼히 필기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선생님의 설명을 차곡차곡 적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혼자서 문제집, 참고서 등으로 공부하면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교과서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접한 모든 내용을 교과서에 적게 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참고서가 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과서가 저만의 독특한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궁핍한 시절, 교양을 먹여준 교과서

저만의 독특한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참고서를 뒤질 필요도 없이 저만의 교과서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가 헛갈리거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즉시 교과서를 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두었던 내용이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이때 느껴진 희열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서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참고서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교과서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요즘 교과서는 사진 자료도 많고 종이의 질도 좋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자신만의 참고서를 만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 ■ 두번째 에피소드는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종이가 갱지 같은 느낌으로 종이의 질이 좋지 않았고, 자주 보지 않는 미술 교과서는 코팅이 되어 있는 질 좋은 종이를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미술 교과서에 애착이 많이 갖습니다. 이런 애착은 이 미술 교과서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까지 확장되었고 저는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좋은 작품들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찾아



박지선 · 개그우먼



나 좀 볼래용?

박지선 지음



보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스스로 교양을 쌓아간다는 기분으로 실행했던 일이었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지침 없이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찾아 공부하는 일은 어렵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토대로 다른 작품들을 찾아보는 일은 수월했습니다. 물론 요새는 너무 바빠서 미술에 관심 갖는 일이 어렵지만 중학교 때 이런 노력을 기울였던 저를 회상하면 뿌듯해지곤 한답니다.

■ 세번째로는 지금도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클래식 CD를 모으고 음악을 자주 듣고 노래를 부르지만, 학창시절에도 음악에 대한 저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가요도 좋아했지만 정말 할 일 없이 무료할 때 음악책을 펴 들고 음악책에 나와 있는 노래를 하나둘씩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가곡도 포함되어 있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가곡들은 다 학창시절에 습득했던 것 같습니다. 가곡들은 요즘에 유행하는 뉴에이지 음악들처럼 사춘기 때의 요동치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외국 가곡 중에는 '울게 하소서(Lascia ch'io pianga)'라는 가곡이 제일 기억에 남고 한국 가곡 중에는 '희망의 나라로'라는 가곡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곡은 멜로디도 좋지만 멜로디에 어울리는 가사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나의 시를 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춘기 시절 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정확시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에 실리는 가곡들은 수많은 가곡 가운데 엄선된 가곡들이기 때문에 멜로디와 가사의 아름다움은 최고입니다. 또한 가사의 주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대중가요에만 빠지지 말고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가

곡들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 네번째로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기술·가정 교과서에 관한 것입니다. 가정 영역 부분에는 다양한 요리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요리 실습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수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리와 관련한 방법은 기술·가정 교과서를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실과라는 교

과서를 많이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요리법을 바탕으로 제가 이것저것 첨가해보기도 해서 새로운 요리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각종 매체의 발달로 각종 정보가 넘치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적만 해도 정보를 접하기 힘든 때였기 때문에 교과서가 가장 중요한 정보 공급처였던 것 같습니다.

■ ■ 교과서와 관련된 마지막 추억은 영어 교과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영어교육이 수면 위로 떠올라 활성화되었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처럼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렇게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며 이야기하니 제가 굉장히 나이 든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보다는 세상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어찌됐건 영어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터라 저도 영어공부에 몰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은 조금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았던 인천 지역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감각하던 때에 영어 선생님은 매일 학생들을 다그치며 영어 책을 손에서 놓지 말고 무작정 소리 내어 읽으라고 권장하셨습니다. 지금은 무의미하게 느껴지겠지만 자신도 모

르게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중학교 때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열심히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물론 제가 현재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 게 중학교 때 열심히 읽었던 영어 교과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영어 교과서가 시시하다고 팽개쳐 놓지 말고 지금부터 무작정 소리 내어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은 이미 세계화 시대의 길 위를 뚝뚝 걸고 있을 테니까요. **한**



원교재사는 '더불어(with, together)의 경영 이념'으로 출판,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영상 교재 제작, 기술·가정·과학에 관련한 교재·교구 제작, 교실 현대화 및 리모델링 분야 등 폭넓은 교육 사업 분야로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석경 원교재사 사장

교육 환경의 변화에 한걸음 앞서가는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 좋은 교육 자료 개발과 훌륭한 인재 양성... 원교재사



원교재사
www.wonn.co.kr

*** 원교재사는 창사 이래 교육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교재사의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원교재사는 기술·가정·과학 교과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1년 '도서출판 윈'이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래, 기술·가정 교과 관련 서적과 교과서 출판,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영상 교재 제작, 교재·교구 제작, 교실 현대화 및 리모델링 사업을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교재사의 사업 분야를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판 분야입니다. 원교재사는 제도, 컴퓨터, 기술·가정 관련 서적들을 꾸준히 출판해 왔습니다. 또한, 20년 간 기술·가정 교과 분야 사업을 통해 얻은 학교 현장의 의견과 정보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철저한 기획 과정을 거쳐, 2007 개정교육 과정에 처음으로 기술·가정 교과서를 출원하였고,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둘째,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영상 교재 제작 분야입니다. 기술·가정 교과 소프트웨어인 '꿈의 교과서', 기계 공구 조작 소프트웨어인 '신나는 똑딱이 여행', 전기·전자 회로 구성을 위한 '브레드 보드', 로봇·퍼즐·자전거와 같은 공작 실습 소프트웨어 '손놀림 교육 시리즈', 그리고 수예 관련 소프트웨어 등 기술·가정 교과를 중

심으로 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학술정보원 등으로부터 수상 및 우수교육용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았으며, 특히 '꿈의 교과서'는 사진, 삽화,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영화와 영상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가정·과학에 관련한 교재·교구 제작 분야입니다. 기술·가정·과학 교과는 특성상 실습과 실험을 통한 체험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성격, 교수·학습 방법을 반영하여 다양한 실습·실험용 교재와 교구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교재사가 개발한 자이로드롭, 자기부상열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자동차, 전기 자동차, 다목적 수송 실험 장치, 로봇팔 등은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 과학 축전 등의 행사와 기술·가정·과학 교과 수업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넷째, 교실 현대화 및 리모델링 분야입니다. 우리는 노후한 교실을 현대화하여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교실, 교사들이 즐겁게 가르칠 수 있는 교실”로 만들기 위해 인체공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교과 특성에 맞는 쾌적한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 원교재사의 경영 이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교재사의 경영 이념은 ‘더불어(with, together)’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로 인해 갈등을 겪고, 갈등은 때때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확산된다면 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기업 경영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이나 고객, 다른 기업과 관계를 맺고, 국가나 사회와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에서 혼자가 아닌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기업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 힘쓰고,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양로원이나 보육원 방문 등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기업과도 서로 공존할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원교재사 직원들은 매일 아침 ‘가르치기 쉽게, 배우기 쉽게’를 외치면서 하루 업무를 시작합니다. 원교재사가 개발하는 모든 교과서, 참고서, 소프트웨어, 교육용 교재·교구는 교사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실천 구호는 원교재사가 창립 이래 교육과 ‘더불어’ 가기 위해 철저하게 지켜온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의 실천 정신은 데카르트(Tech-art) 정신으로, 기술(Technology)과 예술(Art)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출판물,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 영상, 교재·교구 등에 기술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들이 융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원교재사는 기술·가정 교과서만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사농공상 사상으로 인해 실용 학문을 홀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과학 기술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도 기술·가정(실과)은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교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술·가정 교과를 전문으로 한다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땅이 좁고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기

술 개발을 통한 다양한 제품의 수출이 국가 경제의 근간입니다. '기술'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정 교육을 소홀히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이런 제 생각이 기술·가정 교과서만을 만든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올바른 기술·가정 교육을 통해 실천적, 실험적 학습, 손놀림 교육(학습)을 통한 지식 습득 및 창의력 함양, 그리고 직업과 진로 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나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다는 노동과 근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원교재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교재사의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니 기분이 좋네요. 원교재사는 오랜 준비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과서를 사전 조사하여,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하는 교과서의 성격, 목표, 내용,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만들었습니다.

원교재사의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보고 싶은 교과서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학생들이 소설책처럼 펼치고 싶고, 읽기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캐릭터를 개발하였고, 직업을 재미있는 학습 만화로 소개하여 학



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독성이 좋은 서체와 밝고 부드러운 색채를 사용하여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디자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체험 중심적 교과서입니다. 체험 중심 학습을 위해 주

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의 실습 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손놀림 교육을 통해 사물을 조작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창의적인 사고와 논리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최근에 논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경향을 반영하여, 각 단원의 마무리에 논술 과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모둠을 구성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토의하고 협동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심,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교재사의 교과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내용인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창의력, 체험 중심적 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교재사가 펼치고 있는 사회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기업은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원교재사는 앞서 말씀드린 경영 이념처럼 우리 주변과 '더불어' 가기 위한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양로원과 보육원을 방문하고, 지역 내의 독거노인을 찾아가 대화, 목욕 시키기, 생필품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들은 매년 불우 이웃 돕기 성금과 수재 의연금 등을 사회 기관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학금 지급, 도서 및 기자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오지에 있는 학교 등에 각종 도서와 교재, 교구 및 기자재 등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기술교육학회의 기술 교사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기술 교사를 선발하여 기술 교사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원교재사는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매년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어민 강사를 통한 사내 영어 회화 무료 수강 및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교재사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원교재사는 앞으로도 과학·기술·가정 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매진할 것입니다. 현재 원교재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구상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기술·가정에 대한 학술 잡지를 출간할 것입니다. 기술·가정 교과 관련 교육 정보, 학계 현황과 흐름, 그리고 학술 정보들을 소개하여 기술·가정 교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과학, 기술,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교양서적을 출판하고, 외국의 양서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어, 과학, 기술, 가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및 영상 교재 사업의 확대입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양질의 소프트웨어 및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한 교육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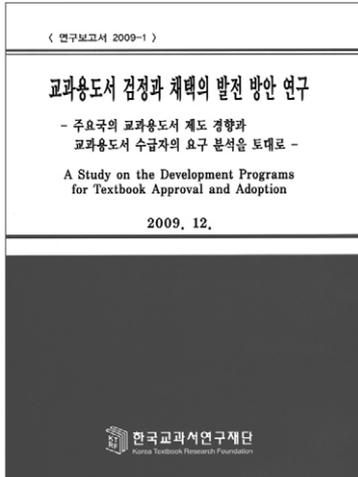
끝으로 원교재사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한걸음 앞서가는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 좋은 교육 자료 개발과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교재사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

• 인터뷰 || 김종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무국장

연구보고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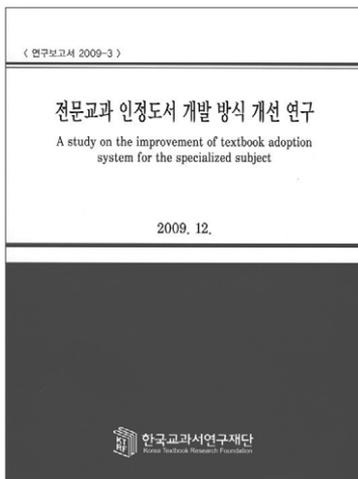
교과용도서 검정과 채택의 발전 방안 연구

-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제도 경향과 교과용도서 공급자의 요구 분석을 토대로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제도의 근간인 검정 제도를 교육과정 정신에 맞추어 고찰한 다음 검정 제도와 채택 방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그러기 위해 선진국의 교과용도서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한편, 현장 교사와 발행 종사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제도적인 측면과 운용에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문교과 인정도서 개발 방식 개선 연구



이 연구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전문교과에 적합한 인정도서 개발의 방식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교과서 관련 전문가,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관련 담당관 및 교과서 인정 담당관, 인정도서 개발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 적합성 및 완성도를 높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방안들은 전문 교과가 현재의 국정 도서 체제를 벗어나 경쟁력 있는 개발 방식으로 인정도서가 개발·보급되고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연계된 인정도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여러 실천 방안 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교과서별 구입처**

		교과서	발행사	전화 번호
국정 교과서	초등학교	• 국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특수학교	• 미래엔컬처그룹	• (02) 3475-3800
		• 영어(CD, TAPE 포함)	• 천재교육	• (02) 3282-2851
		• 수학, 사회, 실과 (1, 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생활의 길잡이, 즐거운 생활 포함)	• 두산동아	• (02) 3670-5109
		• 도덕(생활의 길잡이 3~6학년 포함)	• 지학사	• (02) 330-5302
		• 과학(실험 관찰 포함)	• 금성출판사	• (02) 2077-8145
		•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 교학사	• (02) 701-5102
	중학교	• 국어 2, 3학년(생활 국어 포함), 국사, 특별활동 지도 자료	• 두산동아	• (02) 3670-5109 • (02) 3475-3800
		• 생활 외국어	• 천재교육	• (02) 3282-2851
		• 도덕	• 지학사	• (02) 330-5302
	고등학교	• 국어, 문법, 국사, 공업계, 수산계, 상업계 가사 실업계(이산 수학, 확률과 통계 포함)	• 두산동아	• (02) 3670-5109
		• 도덕, 윤리 계열, 농업계	• 지학사	• (02) 330-5302
		• 외국어계(아랍어 1, 아랍어 2 포함)	• 천재교육	• (02) 3282-2851
• 과학계(생활과 과학, 고급 수학 포함)		• 금성출판사	• (02) 2077-8145	
	• 체육계(체육 개론, 스포츠 과학)	• 교학사	• (02) 701-5102	
검정 교과서	• 위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 (인정 교과서 미포함)	• 한국검정교과서	• (02) 2657-3540~4	

*** 서울 지역 직매장**

» (주)미래엔컬처그룹 직매장 모든 국정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 미래엔컬처그룹 빌딩 1층
- 지하철: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전화 02-3475-4097

» 두산동아(주) 직매장 모든 국정(검정 일부)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2층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전화 02-3670-5106, 9

» 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모든 검정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2 다옥빌딩 별관 2층
- 지하철: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 9호선 당산역 13번 출구 사이 골목 30m
- 전화 02-3663-5409~12



교과서 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참여 분야

〈현장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활동,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보내실 곳 : E-mail 접수 editor@ktrf.re.kr

기타 문의 전화

02-2651-1953 연구지 담당자 앞

